

2000 울곡학술대상 송석구 총장 수상



본교 송석구(철학)총장은 지난 25일 사단법인 울곡학회에서 수여하는 울곡학술대상을 수상했다. 울곡학술대상은 매년 울곡의 철학·학문·사상선양에 탁월한 업적을 지닌 사람을 선정해 시상한다.

학술상 수상기념으로 송석구 총장은 26일 강릉시청이 주관하는 강연회에 참석, '울곡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경향행정동문 장학금 2천190만원 기부

본교 경향행정학과 동문들이 지난 16일 장학금으로 2천1백90만원을 기부했다.

이는 에스원과 캡스를 비롯한 13곳의 경회회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이 모금한 것으로 경향행정학과 장학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한편, 경주캠프 지역개발대학원 동창회도 16일 본관 건립기금으로 3천만원을 기증했다.

교직자 동문 정기총회 본교 입시홍보 결의

본교 '동문 교직자 방문 및 정기총회'가 지난 21일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송석구 총장, 권노갑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교직자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본교 발전상과 입시제도 소개, 회원조직과 정기회비 등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부를 구성, 입시 홍보에 기여하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행사 2차 6명 합격

제44회 행정고등고시 2차 시험에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6명이 합격했다.

합격자는 △권준을(법4) △정남희(경제졸) △이은상(경행4) △조운오(경행졸) △하인호(경행졸) △석복영(물리졸) 총 6명이며, 최종 3차 시험은 다음 달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23일에 있을 예정이다.

전공선택 편중 현상 뚜렷

전자공학 92.7% 국제학 1.0% ... 전공배정 결과 드러나

2000학년도 2학년 학부 전공결정이 지난 26일 발표되었다. 그 결과 전공별 인기학과와 비인기 학과를 두고 각 전공마다 두드러진 선호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가령, 공과대 전자·전기공학부는 총 178명 중 165명이 전자공학을, 정보산업대 산업시스템공학부는 총 60명 중 47명이 산업정보시스템공학 전공을 지원해 전공별 선호도에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번 전체 전공선택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전자공학 선호도가 92.7%로 가장 높았던 반면, 국제학 선호도는 1.0%로 현저

히 낮았다.

이번 전공결정과정에서 40명 정원외에 2명이 지원한 국제학 위은혜(사회과학부2) 학생은 "아시안관련 수업을 들으며 국제학 분야에 재미와 흥미가 생겨 국제학 전공을 선택했다"며 "주변의 친구들이 뚜렷한 목적보다는 다수의 선호추세를 따르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공선호의 편중현상은 학부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편중현상은 모집단위 광역면에 따라 단과대별로 입학한 1

학년 학생들에게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많은 수의 전공이 개설돼 있는 문과대는 국문학이나 영문학과 같은 인기학과에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반면, 철학이나 윤리문화학과는 기피현상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해배(철학) 문과대학장은 "근본적인 교육개혁의 흐름이 시장경제 논리를 따르는 한 전공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조속히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학분야의 경우 최근 정보통신과 바이오산업이 각광을 받으면

서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근래까지만 해도 공대를 대표하던 기계·화학·재료공학 등 전통공과계열에 대한 학생지원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본교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전공 결정에서 기계공학은 정원 60명에 43명이 지원하고, 화학공학은 정원 70명에 40명이 지원해 학생지원율이 조금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전통공과계열과 더불어 철학, 윤리학, 경제학 등 전통인문사회계열에도 나타나는 비슷한 현상에 대해 김병식(화학공학) 공과대학장은 "많은 학

(표)

학부	전공	선호도
인문학부	사학	63.0%
	철학	23.3%
	윤리문화학	13.7%
국어국문학부	국어국문학	62.5%
	문예창작	37.5%
전자전기공학부	전자공학	92.7%
	전기공학	7.3%
건축토목공학부	토목환경공학	28.9%
	건축공학	71.1%

* 선호도 = 각 전공지원자 ÷ 전공소속학부 지원자 총인원

생들이 시대적 유행을 따라가기가 예민 급급한 것 같다"며 "각 전공의 역할과 몫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선택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고 전했다.

김은선 기자
ppuzic@dongguk.edu

지면안내

민주화운동 보상법 6~7면

지난 20일 1차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법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화운동 보상법을 진단하고 올바른 개정방향을 모색한다.

조선일보 재류 찾아주기 기회 4면

한국영화학회의 '신화'는 계속된다 5면

인사동의 옛모습과 미래상 11면

보리수

사정근(四正根)

박 경 준 (불교대 불교학부)

사정근(四正根)이란 선을 더욱 자라게 하고 악을 멀리 여의려는 불교의 수행덕목으로서 △이미 생긴 악은 없애려고 노력함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영원히 있어, 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함 △이미 생긴 선은 더 자라나도록 노력함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자꾸자꾸 생겨나도록 노력함 등의 네 가지다. 이것은 알른 보편 평범한 내용처럼 생각되지만 깊이 음미해 보면 독특한 의미가 느껴지는 큰 지혜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대개 타성과 안일에 쉽게 빠져들며 남에게 열거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다. 나쁜 일을 저지르고 나서도 배를 꾸는 반성과 참회보다는 적당한 얼버무리면서 점점 악에 젖어든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도 생겨났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막가파 처럼 의도적으로 더 큰 악을 행하기도 한다. 또한 남이 행한 선은 한사코 평가절하하고 외면하려 하면서도 어쩌다 자신이 행한 선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 하고 과장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든다. 이런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개척하기보다는 과거의 영광에 살거나, 좋은 일을 시작해 놓고도 금방 방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기 십상이다. 삼폐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 IMF의 구제금융에 의존해야 했던 우리 국민도 필시 이런 부류에 속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자신의 몇 가지 장점이나 선행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겸허와 하심으로 기존의 선을 더욱 키워나가고 아직 갖추지 못한 선을 끝없이 일구어 내야 한다. 그래야만 창조적인 삶을 통한 자기 완성과 세계완성을 마침내 이루어 낼 수가 있다. 우리는 "평생토록 선을 행하여도 선은 오히려 부족하고 하루동안 악을 행하여도 악은 스스로 넘친다"는 명심보감 계선편의 가르침도 사정근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종립학교관리위 '동국발전' 세미나 오는 31일 덕암세미나실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학담)는 '동국학원의 위상과 발전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오는 31일 오후 1시 서울캠프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동국학원의 설립과 건학이념'이라는 주제로 중앙총회의원 영담스님이 기조발제를 하며, '조계종단과 동국학원의 생산적 관계 모색'을 주제로 중앙총회의원 장곡스님, '동국학원운영 현황과 발전방향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삼익선(행정학) 교수회장이 각각 주제토론을 한다.

그리고 현각스님, 정안스님, 정용길(정치외교학) 기획인사처

장, 김정대 노조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조계종의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지난 8월 대학 운영 개입을 선언한 이후 발의는 실질적인 첫 행사이다.

한편 학교측은 "종단이 대학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법에 비추어 볼 때에도 대학의 자율운영이 법과 원칙에 맞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종단은 "법에 따른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탈 종단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이어서 이번엔 열리는 세미나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회대 K교수 사건 해임하기로 결의

본교 사회학과 K교수 성희롱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소집된 징계위원회는 지난 19일 K교수의 해임을 결정, 현재 서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8월 말 징계조사위원회가 진위 여부를 파악한 후 2차례 징계위원회를 소집, 해임기로 결의한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학과 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발성폭력 학제 제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학회에도 이같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부 결승 진출 오늘(30일) 연세대와

본교 야구부(감독=한대화)가 '제50회 전국종합야구선수권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지난 28일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4강전에서 야구부는 연장 13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성균관대에 5대4로 어렵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본교는 지난 20일 개막한 이번 대회에서 중앙대, 제일유리, 고려대, 성균관대를 차례로 꺾으며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다. 야구부는 오늘(30일) 오후 2시에 연세대와 결승전을 치른다.



사람냄새...

민속극 연구회 '탈'은 지난 26일 미시령 사고 부상자 보상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전통민속극을 벌였다. 미시령사고 당시를 재현, 풍자하는 장면을 지켜보던 관객들은 지난 봄의 가슴 아픈 기억을 떠올리듯 공연내내 시선을 떼지 못하였다.

김은선 기자 ppuzic@dongguk.edu

의대, 계속된 수업거부 집단유급 위기

유급기한 · 신입생 선발 문제 우려

본교 경주캠프 의약분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박재완·분.4 이하 비대위)는 지난 8월부터 진행해온 천막농성을 마무리, 각 단과대의 협조 아래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재 의과대(회장=지예섭·분.2) 재학생 중 예과를 제외한 모든 전공의들은 수업과 진료를 모두 거부한 상태이다.

특히, 본과 4학년 학생 전원은

의사고시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전국 41개 의과대 학생들의 투쟁에 본교 역시 동참한 것이며, 이에 따라 자퇴서를 집단으로 작성했다.

또한 지난 25일 열린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의과대가 각 단과대의 의약분업 투쟁 동참을 요청함에 따라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의과대의 이러한 투쟁에 대해

일부 학생과 학교측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학교측은 의대생들의 유급 결정 기한이 한 달 여 밖에 남지 않은데다가, 2001학년도 신입생 선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난감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과대의 박재완 위원장은 "유급 기한과 신입생 선발 문제는 비대위와 학교측과의 충분한 논의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전기금 ARS 7000-119

동대 학술상 · 문학상에서 숨어있는 지성의 날개를 펼치십시오

제38회 동대 학술상

-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 본상 및 가작, 사회과학상 - 본상 및 가작, 자연과학상 - 본상 및 가작
- 응모요령: 3/4분기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제출기간: 2000년 11월6일부터 12월7일까지
- 시 상: 인문과학상 - 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 - 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자연과학상 - 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직과 함께 발표
- 입상작발표: 2001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제15회 동대 문학상

- 모집분야: 시부문 - 본상 및 장려상, 소설부문 - 본상 및 장려상, 평론부문 - 본상 및 장려상
- 응모요령: 시부문 - 3편 내외, 소설부문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평론부문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제출기간: 2000년 11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 시 상: 시부문 - 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 -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 -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직과 함께 발표
- 입상작발표: 2001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Web TOEIC 강좌 오늘부터

언어연구교육원(원장=조의연·영문학)은 본교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Web TOEIC 온라인 강좌를 오늘(30일)부터 진행한다. 지난 26일 신설된 이 강좌는 언어연구교육원 홈페이지(http://today.dongguk.ac.kr)를 통해 진단 토익시험을 본 후 점수에 따라 초·중·고급 중 선택해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강좌를 들을 수 있다. 강좌의 내용은 INTRO, TOEIC L/C, GRAMMAR, TOEIC R/C 세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을 70%이상 학습해야 다음 단계를 수강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실무교육

여학생실(실장=김영순·화학)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전자상거래 실무교육'을 오늘(30)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 e-Business 분야의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이번 교육은 컴퓨터 기초지식 등 심사와정을 거쳐 선발된 40여명의 졸업생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90시간에 걸쳐 매주 월·목·금·토 ESC 1에서 진행한다.

조창화 교수 도서 기증

본교 퇴직교수인 조창화 교수가 지난 16일 중앙도서관(관장=조승길·불교학)에 1000여권의 책을 기증했다. 조창화 교수는 80년 가까이 본교 경제학 교수로 재직할 바 있으며, 기증한 책은 주로 경제학 관련 서적들이다. 이와 관련해 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노동경제론, '경제성장'과 '계획관' 등 경제학 관련 서적이 많아 전공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적 할인판매 실시

다량판 서점은 지난 23일부터 전공도서를 제외한 전 서적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서적 할인 요구와 인터넷 서점의 할인판매 추세에 따른 것으로 전공서적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재고 서적 50% 할인 판매는 다음달 말까지 연장한다.

특강, 누구를 위하여 열리는가

학생들 무관심 ... 다양한 홍보와 여론수렴 필요

학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각종 특강 포스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유명인사 초청특강이나 외국어특강 등 그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그러나 웬만한 특강장소는 텅 비어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지난 10일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박병남·무역4)는 '취업대비 유명인사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취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계기업 강연회, 이미지 메이킹, 여학생 강연회 등 모두 4개의 강좌가 열렸다.

그 중 이미지 메이킹 강연을 들은 한 학생은 "강의 내용이 지루하고 식상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다"며 "실제 면접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지 메이킹 강연회에 모인 인원은 50명도 채 되지 않았다. 명사초청특강이나 학술 강연회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낮은 참여도는 더욱 심각하다. 가령 '사랑과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여남영 위원이 진행한 명사초청특강에는

학생들이 40여명밖에 모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연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비우는 학생들도 많았다. 이처럼 특강의 저조한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은 강연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 들을 수 없었다"며 "대부분의 강연이 수업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가을이 되면서 여러 학술제나 학술강연회가 많이 열린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들도 학생들의 무관심



몇몇 학생만이 참석한 탄빈 강연회 모습.

속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특강을 주최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다양한 홍보와 여론을 잘 수렴

하는 일이 시급할 것으로 여겨진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회전무대

도자기 불패

0...미션 파서를 -도·자·기 요즘 도서관에는 은밀한 작전을 수행중인 사람들이 있다는데. 알아보니, 도서관 자리 맡아주기가 금지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예전 도자기의 명성(?)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라고. 공부하겠다는 열정은 가상하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하는 법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중국도·자·기 주식회사 - 특수제작!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물을 주는 남자

0...요즘 팔정도물 지나가는 학생들은 무료로 샤워를 한다는데. 알아보니, 팔정도 안의 잔디에 물을 주는 스프링클러가 학생들에게까지 서비스 하는 것이라고. 실패없이 돌아가는 스프링클러 때문에 학생들의 웃음 짓어만 가니. 이는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낮시간에 스프링클러가 가동되기 때문은 아닌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꽃을 들면 스킨샤워, 팔정도를 지나면 무료샤워?!"

자료불만족

0...새로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해화관 1층 멀티미디어실이 학생들의 매물한 외면을 받고 있는데. 새로운 시설과 첨단 장비로 학생들을 맞고 있던 하지만 소장 자료는 예전 것이 많아 학생들의 이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이는 멀티미디어실의 자료가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자료이용 ... 멀티미디어실 사용 일주일 이면 근로장학생만큼 안다"

보이나요(?)

0...해화관은 손전등 없이 "출입불가(?)" 알아본즉, 해화관이 별관신축 이후 조금이나마 들어왔던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아 더 어두워졌다고.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강의실이 어두워 학생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는데. 학생들은 손전등이라도 비춰가며 수업을 받아야 하는건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보이나요~ 얼마나 보려했는지~ 인보이는 책을 보면 지루 눈물이 나서..."

교내 음식물 반입금지 강화

교문부터 철저히 감시 ... 학교측 자발적인 참여 당부

이제 교내에서 '철가방'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사무처(처장=왕영수) 총무팀은 오는 11월 1일부터 교내 음식물 반입금지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총무팀은 교내 음식물 반입을 막기 위해 각 건물마다 반입금지 경고문을 붙이고 반입을 자체 해 달라는 이메일을 교내 구성원들에게 보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협조를 요청하며 교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왔지만, 음식물 반입은 줄지 않았으며, 약취 등 학생들의 불만은 높아졌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무팀은 음식물 반입에 대해 경비를 강화하

고자 교문에서부터 음식을 반입을 금지하고 각 건물 음식물 반입도 경비실을 통해 감시할 예정이다. 현재 교내 각 학생회실이나 학회실에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교내로 음식물을 반입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많은 동아리가 모여있는 학생회관은 특히나 음식물 반입이 빈번하다. 하지만 음식물찌꺼기나 빈 그릇들을 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쾌적한 환경에 장애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청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사과대의 한 학생은 "지나다닐 때마다 먹고 그냥 둔 빈 그릇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며 음식물 반입금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학생은 "늦게까지 남아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음식을 반입할 수밖에 없다"며 반입금지에 동조하지 않기도 했다. 학생들의 편의와 깨끗한 교육환경 유지라는 두 측면이 서로 대립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어떻게 평가될지 기대된다. 엄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지난 27일 원흥관에서 기계공학과 학생들의 로봇 길찾기 경연대회 열렸다. 모두 13개조가 참가해 다양한 디자인의 로봇으로 열띤 경합을 벌였다. 출발직전 자신이 만든 로봇을 살피는 학생의 표정이 지못진지하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교환유학생 선발방식 변경

면접 확대 · 외국어성적 가산점 부여

연구교류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는 지난 13일 해외자매대학교 교환 유학생 선발방식을 변경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학부과정 성적을 25% △면접을 50% 확대 반영하며 △회화시험과 필기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을 25%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어 능력에 비중을 두어 △TOEFL 5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JLPT 2급 또는 JPT 600점 이상 △한어수평고시 HSK 6급(중등 C급) 이상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CISSP 자격증 시험 국내 최초 도입

국제정보대학원(원장=송석규·철학)은 CISSP(국제공인 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 시험을 도입, 오는 12월 16일 첫 시험을 실시한다. CISSP는 정보보호분야에서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정보보

호전문가 자격증으로 본교가 지난 15일 국내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한편, 국제정보대학원은 이번 CISSP 시험대비 준비교육을 다음달 4일부터 1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생활수기 접수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유명곤·산공4)는 오늘(30일)부터 '생각의 발을 가는 코끼리'라는 제목 아래 대학생활수기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 작품은 자유 형식이며,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한다. 장문은 A4용지 3매 이내, 단문은 A4용지 1매 이내이다. 다음달 13일 오후 12시까지 학생복지위원회 홈페이지(http://my.netian.com/~hakbok)나 학생복지위원회 이메일(tongilhaza21@hanmail.net)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회과학부 축제 개최 다음달 2일부터 이틀

사회과학부 학생회(회장=이상희·사회과학부2)는 다음달 2일부터 이틀간 사회과학부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2일에 축구, 농구, 줄다리기 등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3일에는 사회과학부 락 소모임인 마구간의 공연을 시작으로 노래자랑을 열 계획이다. 불교대 가을 축제 다음달 3일 만해광장 불교대 학생회(회장=주성하·불교4)는 다음달 3일 단과대 가을 축제를 개최한다.

만해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불교유적답사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과 전 학부생들의 친목·단합 도모를 위한 것이며, 행사의 내용은 체육대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체육대회는 줄다리기, 2인 3각 등으로 학부생들이 주체가 되고, 카드점, body painting 등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상설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고수동정

▲장충식(미술사학)=지난 27일부터 오는 3일까지 문화재 보호재단 교육생을 인솔하여 중국 실크로드 학술문화 유적답사에 참가.

가을학기 2차 어학특강

- 특강기간 : 10월 30일(월) - 12월 8일(금)
■ 접수기간 : 10월 17일(화요일)부터 30일(월)까지
■ 수강료 : 70,000원(Writing & Speaking, WEB TOEIC 제외)
■ 접수처 :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 (2270-3471)
http://today.dongguk.ac.kr/

- 1. WEB TOEIC 강좌 (신설)
- 강의 : 인터넷 접속을 통하여 원하는 토익과정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강좌. 자율적 주별 학습량/학습진도에 따른 온라인 토익학습 과정. 강의료 : 15,000원
2. 영어회화 (15명 정원)
- 강사 : 풍부한 강의 경험을 가진 동국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원어민 전임교원
- 강의 : Beginning, Intermediate, Advanced
- 시간 : 오전 7:40-8:50(월,화,목,금), 오후 5:00-6:00(월,화,목,금)
3. Writing & Speaking (15명 정원)
- 강사 : TESOL자격증을 소지한 원어민 전임교원 Darcy Shipman, Mary-Anne Willmott
- 강의 : 영어 작문반으로 강의와 1:1 Error Correction을 통하여 어휘와 문법을 익히고,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글쓰기 연습
- 시간 : 오후 5:00 - 6:30 (월,수,금), 수강료 : 100,000원
4. Screen English (25명 정원)
- 강사 : EBS 영어강사 Michael LeBlanc
- 강의 : 영화를 통한 생생한 생활영어 학습
- 시간 : 오전 7:40 - 8:50 (월,화,목,금)
5. Listening & Speaking Skill Building (25명 정원)
- 강사 : Joseph Schouweiker
- 강의 : 체계적인 청취훈련을 통한 듣기능력 향상
- 시간 : 오전 7:40 - 8:50 (월,화,목,금)
6. 나용준 TOEIC CLINIC (30명 정원)
- 강사 : 나용준(오르라호마 주립대 영문학 박사, 영어교수법 부전공)
- 시간 : Listening TOEIC : 오후 5:00 - 6:00 (월,화,수,목,금)
Reading TOEIC : 오후 6:00 - 7:30 (월,수,금)
Vocabulary and Grammar : 오전 7:40 - 8:50 (월,화,목,금)
7. TOEFL 준비반 (30명 정원)
- 강사 : 오금동(동국대학교 강사, 영국 Bell College, 미국 U.C at Riverside 영어교육과정 이수)
- 강의 : 1회에 걸친 Practice Test를 포함한 토를 종합 준비반
- 시간 : 오후 5:00 - 6:30 (월,수,금)
8. 일본어 강좌 (15명 정원)
- 강사 : 요시모토 하지메(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전임교수)
- 강의 : 초급 수준의 일본어 회화 강좌
- 시간 : 오후 5:00 - 6:30 (월,수,금)

언어연구교육원

교원임용고사 대비 교육학 특강

교원임용고사 대비 교육학특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수강 바랍니다.

- 기간 : 2000년 11월 1일(수) ~ 11월 16일(목)
● 시간 : 17:00 ~ 18:40 (1일100분강의)
● 장소 : 학림관 J201, 402, 503
● 대상 : 교원임용고사 준비 사범대생 및 교직과정유지수지(비사범대)
● 수강료 : 무 료 (교재제공)
● 시간표

Table with 5 columns: Date, Course Name, Instructor, Location, Remarks. It lists the schedule for the teacher recruitment exam preparation course, including dates like 11/1, 11/2, 11/3, etc., and course topics like 'Education Society and Career Education'.

사범대학

명사초청특강

“우주(宇宙)와 인간(人間), 그 시작과 마지막”

- 1. 일시 : 2000. 11. 9(목) 17:00~18:30
2. 장소 : 본관 중강당
3. 강사 : 서광조 박사

강사 주요역력

- 동국대학교 정치학과(학사)
·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교(경영학 석사)
· 미국 뉴욕대학교(경제학 박사)
· 미국 City은행 및 산업은행 조사부, 기획책임자 역임
· 국제경제연구원 및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1985년 ~ 현재 세종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강사 주요저서

- 현대한국경제사, 성숙한 시민 개방된 사회,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지식의 빈곤성, 한국의 자유 민주화와 현대화, 한국 사회속에서의 인간과 그 삶, 21세기 한국사회와 우리의 삶, 기업윤리와 경제윤리, 우주와 인간, 그 원초와 시작을 찾아서 따수

강사 주요논문

- 사회계약론과 경제윤리, 의식의 자연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동체주의와 경제윤리 따수

학 생 처

아셈(ASEM) 반대운동을 되돌아보며 **논단**

세계 민중의 저항, 아셈 저지로 연결 안돼

NGO의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IMF가 던져준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야 했다. 김대중 정부는 이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 포장하여 개혁의 이름으로 강제 해왔다. 그리고 시민운동은 경제위기의 책임 공방 이후 아이를 돌보지 못해서 빚을 갚고, 실업문제는 가족의 품에서 해결하는 대대적인 운동에 나섰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있어 IMF의 지위와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할 여지조차 가지지 못하는 물론 노동과 실업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책임을 논할 여지를 상실하였다.

그로써 정리하고, 파견제, 변형근로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고, 개방농정에 따른 농가부채도 천만이 넘어서 빈민도 국민 개개인의 문제이지 국가적 과제는 아니었다. 교육과 보건의료도 시장에 맡겨지고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사회성이 상실되는 것도 그리고 증권시장이 초국적 금융 자본의 최고의 놀이터가 되어도 이는 단지 국민이 감수해야 할 천형일 뿐이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전세계적으로 예외없이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재편이라는 사실을 최근의 세계적인 반(反)WTO, IMF, 세계경제포럼 투쟁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즉 IMF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추진하는 미국 헤게모니의 금융자본주의를 강제하는 하위기구이다. 또한 WTO는 이를 관장하는 세계기구일 뿐 전세계 민중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관통하는 지구적 연대를 통하여 다뤄야 한다.

아셈반대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이자 한국의 노동자 민중 그리고 여성, 환경, 인권운동의 지구적 연대선언이었다.

아셈이라는 생소한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 투쟁이었음에도 대중들이 보여준 의지는 실로 놀라울 정도였다. 서울투쟁은 지난 3년간의 개혁이라는 억압에 짓눌린 민중적 저항이었다.

못한 것이 사실이다. 선진적 투쟁은 무산되었고 대중적인 저항의 불로리는 막혀 있었다. 여기에는 학생을 포함한 선진활동가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대중조직의 동원과 투쟁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한계 또한 극명하게 표현되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의도했던 '저지투쟁'은 단지 세계화 반대외지를 정권과 자본에게 수용을 촉구하는 '압력행진'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자신에 찬 김대중대통령은 '세계화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국민적 이해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고, 한편으로는 시민사회단체포럼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소위 NGO만이 압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게 되었다.

시민단체포럼, 민중저항 방과제

시애틀투쟁 이후 WTO 해체는 이미 기정사실로 굳혀져가고 있다. 다만 WTO체제를 유지하면서 다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선진국과 초국적자본만이 NGO들의 참여를 통한 비민주적 관행을 개선한 WTO 뉴리운드의 재출범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세계경제포럼도



이종희 진보네트워킹 소장

지구적 통제(global governance)를 위해, 투기자본가의 대명사적인 조지 소로스도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시점에서 시민사회단체포럼의 제기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기본권 그리고 인권,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투쟁을 일력으로 변질시키고 이의 분출을 막아내는 방과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저지를 위해 이제 겨우 한 발자국 내딛었을 뿐이다.

여기서 아셈 '저지투쟁'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소위 NGO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되어질 것인가 하는 과제와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국민행동의 집행단위가 감당해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극복과제도 동시에 안겨 오는 셈이다.

사설

바람직한 성문화를 기대하며

강의시간에 여성의 몸을 '자판기'에 비유하고 남성을 '돈을 넣는 사람'에 비유하는 교수가 있다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난 98년 본교의 한 교양강좌 강의시간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당시 수강생이었던 한 여학생이 총학생회에게 '여성 비하 혐의'로 고발했고, 강사의 공개 사과로 마무리되었다. 위와 같이 극단적인 사건은 아니더라도 수업시간에 외모를 적도로 여성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희화화하는 것 등 남성중심적인 가치로 여성을 폄하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공존'에 판지를 거는 일 또는 '오버'하는 것으로 치부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본교 K교수 성희롱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이 공론화 되면서 한국사회에 비해 비교적 성 문화를 개방되어 있는 일본 사회라는 것과 '노래방에 왜 쫓아갔느냐'라며 피해자의 인격 부조를 탓하는 사람들, 술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며 '취기'에서 정당성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성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대학 사회에서마저 일부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는 잘못된 인식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가부장적 사고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성문화를 뿌리내리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이다. 현재 본교 학생은 성폭력 사건의 처벌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 명시 부족, 학칙적용 대상에 '학생'만 명시되어 있는 것, 그리고 현재 성폭력 문제 전담기구가 없는 것 등을 보완하여 학칙에 독립적인 '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는 교무부 역할을 대학이 해야 하는 것은 대학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비추어 봤을 때 더 분명해 질 것이다.

학생회칙 개정 재고 필요

지난 26일 경주캠퍼스 교무대체실에서 가졌던 총대의원회 정기총회가 성사됨에 따라 총학생회칙이 재 개정되었다. 지난해에는 대의원 과반수 미달로 매번 무산되었던 정기총회가 무사히 성사된 점은 참으로 잘된 일이다.

지난해 5월 학생총회 때에도 참석자 결의로 의결되었던 성폭력 학칙이 이번에 비로소 제정되었다. 1년이라는 시일이 지난 후 지난 학기에 개회하려했던 정기총회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학칙제정이 더욱더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학생회칙 재 개정안 가운데 제3장 대의원총회의 19조 업무 및 권한 6항과 7항에서 △총학생회 정·부회장 및 대의원 총회의장·부의장 불신임 및 탄핵 소추권 △6항, 9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학생 자치단체의 회장 및 위원장 불신임 및 탄핵 소추권에 대한 안은 문제가 있다. 학생회칙 가운데 제2장 학생총회의 14조 개회 및 의결 1항에는 총학생회의 정·부회장, 대의원총회 정·부의장, 학생자치기구 정·부의 탄핵은 참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있다.

대의원 총회의 의장은 총대의원회의장이며 구성원은 총대의 대의원 전원이다. 그리고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며 구성원은 본교 재학생이다. 두 안 모두 총학생회장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두 기구 구성원의 인원 차이가 감안되지 않았고 간선간부가 직선간부들을 탄핵한다는 점에서 대의원들의 대의와 신뢰, 자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는 것이다.

대의원 역시 본교 재학생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학생들이지만 입법·감사기구의 대의원으로서는 활동이 상당히 미약하고, 학생회 문제를 집행·의결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회칙개정안은 탄핵이 아닌 총대를 비롯한 각 학생회의 실추된 권위 회복에 있다.

주 5일 근무 40시간 노동 협의논란 노동조건 진보나? 퇴보나?

노사간 세부쟁점 의견 상충 ... 의견조율 필요

주 5일 근무·40시간 노동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까?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연간 총 근로시간을 2천시간 이내로 줄인다는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사정 위원회는 주 5일 근무제를 근로기준법에 명시,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사양측이 평행히 대립했던 '휴일·휴가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은 △휴일·휴가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 조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게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선진국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이미 1970년대에 도입했으며, 현재 우리 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은 모두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OECD 가입국 가운데 최장 근로시간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주 5일 근무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미흡하긴 하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 주진우 정책국장은 "주 40시간 근무 연내 입법화는 정부가 그 동안 약속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것"이라는 평가다. 또한 재계는 주 5일 근무를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속도, 업종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사용자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정위는 11월말까지 근로시간 단축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간 입장이 대립되고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핵심쟁점인 휴일, 휴가의 경우도 재계는 월차와 생리휴가 폐지, 연차유급 휴가 상한선 등 전면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53%를 차지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일한 휴가를 빼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단계별 도입문제도 재계는 "실노동시간이 짧은 업종과 대기업무 시간을 두고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단계별 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일률적으로 주 5일 근무를 시행해야 한다며 대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규모별, 업종별로 단계를 뒤 실시하는 주장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제'에서도

불이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주 5일 근무제는 여가시간 확대를 통해 자기 계발을 하는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개정안은 민주노총 등이 노동조건 퇴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기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노사간 의견이 상충하는 가운데 관련법을 개정을 위한 국회심의 등 앞으로의 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양영진, 부주간 박승석,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진아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 천리안 ID dgupress,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참사랑 열린 교육의 도량” 2001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영상정보통신대학원(주간) 2260-3762~3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영화영상제작학과: 영화영상제작학
 - 멀티미디어학과: 멀티미디어정보처리, 멀티미디어디자인
 - 네트워크관리학과: 네트워크관리학
- 원서교부 및 접수: 2000. 11. 6(월) ~ 11. 10(금) 09:00 ~ 17:00 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0. 11. 15(수) 14:00부터, 본 대학원 교학부
- 합격자발표 일시: 2000. 11. 22(수) 14:00 (본 대학 게시판 및 본교 홈페이지)

불교대학원(야간) 2260-3097~8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지도자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불교학과: 불교학, 선학
 - 불교사학과: 불교사
 -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 장례문화학과: 장례문화
- 원서교부 및 접수: 2000. 11. 8(수) ~ 11. 17(금) 09:30 ~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0. 11. 23(토) 14:00, 본 대학원 교학부 별도 게시 (지도자과정 전형일시: 2000. 11. 24(금) 14:00)
- 합격자발표 일시: 2000. 11. 30(목) 예정 (개별통지함)

행정대학원(야간) 2260-3102~3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최고관리자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행정학과: 일반행정, 공공정책, 관공행정, 언론홍보, 환경행정
 - 안보행정학과: 외교국방, 방위산업, 군사전략, 안보정책
 - 공인행정학과: 경찰행정, 소방행정, 교도행정, 사법행정, 민간경비
 -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
 - 북한학과: 북한경제, 북한행정, 북한사회, 통일정책
 - 지방자치학과: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재정, 지역개발
- 원서교부 및 접수: 2000. 11. 8(월) ~ 11. 22(수) 10:00 ~ 17:00
- 전형일시 및 장소: 2000. 11. 25(토) 14:00부터, 본 대학원 (90주년기념 학술관 2층)
- 합격자발표 일시: 2000년 11월 25일(토) 13:00
- 합격자발표 일시: 개별통지

경영대학원(야간) 2260-3106~7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최고경영자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경영학과: 조직·인사관리, 생산·품질경영, 마케팅, 재무·증권금융, 국제경영
 - 회계학과: 회계학, 세무회계
 - 무역학과: 인터넷무역
 -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
 - 부동산학과: 부동산
 - 서비스경영학과: 관광경영
- 원서교부 및 접수: 2000. 11. 20(월) ~ 11. 30(목)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0. 12. 2(토) 14:00, 본 대학원 (90주년기념 학술관 1층)
- 합격자발표 일시: 2000. 12. 8(금) 예정

교육대학원(야간) 서울 2260-3109, 3110 / 경주 054-770-2199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교육학과: 교육행정, 교육경영, 상담교육, 유아교육
 - 교과교육학과: 국어, 지리, 역사, 수학, 윤리, 철학, 미술, 한문, 체육, 영어, 물리, 생물, 가정, 컴퓨터, 종교, 중국어, 일어교육전공
 - 원서교부 및 접수: 2000. 11. 13(월) ~ 11. 24(금) 10:00 ~ 17:00 (수, 목요일은 20:00 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0. 11. 24 17:00 까지 도착한 원서에 한함
 - 전형일시 및 장소: 2000. 12. 2(토) 14:00, 본 대학원 게시판에 게시

융합정보대학원(야간) [신입생·편입생] 2260-3722~3723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 모집전공: 신문방송, 정보관리, 광고홍보, 출판잡지
- 원서교부 및 접수: 2000.11. 8(수)~11. 21(화)17:00
- 전형일시 및 장소: 2000. 11. 25(토) 14:00, 본 대학원
- 합격자발표 일시: 2000. 12. 8(금), 본교 홈페이지

언론정보대학원(야간) [신입생·편입생] 2260-3602~3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최고산업경영자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건설·환경공학과: 건축공학, 토목공학, 환경공학
 - 컴퓨터·전자·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전기·전자공학
 - 식품·화학공학과: 식품공학, 신소재 및 생물공학, 응용화학
 - 디자인·경영공학과: 디자인공학, 경영공학
- 원서교부 및 접수: 2000.11.8(수) ~ 11. 17(금) 오후5시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0. 11. 25(토) 14:00부터, 본 대학원 게시판에 공고
- 합격자발표 일시: 2000. 11. 29(수)예정 (개별통보)

문화예술대학원(야간) [신입생·편입생] 2260-3606~7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문화예술지도자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문예창작학과: 문예창작
 - 공연영상예술학과: 공연예술, 영화영상예술
 -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 한국음악, 문화재
 -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 조형예술경영
- 원서교부: 2000. 10. 30(월) ~ 11. 21(화)
- 원서접수: 2000. 11. 08(수) ~ 11. 21(화) 10:00 ~ 17:00

전통일시 및 장소: 2000. 11. 25(토) 10:00, 본 대학원

합격자발표 일시: 2000.11. 29(수) 개별통지

국제정보대학원(야간) 2260-3732~3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국제관계학과: 국제협상, 통상
 -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
 - 국제해양정책학과: 국제해양정책
- 원서교부 및 접수: 2000. 11. 8(수) ~ 11. 22(수) 17:00
- 전형일시 및 장소: 2000. 11. 24(금) 15:00, 대학원 원장실 (동국관 1동 2층)

사회과학대학원(경주·야간) (054)770-2093~4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최고경영자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행정학과: 개발행정, 지방자치
 - 경제·경영학과: 지역경제, 경영, 경영정보, 세무관리
 - 지역정책학과: 국제관계, 법학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 원서교부: 2000. 11. 6(월) ~ 11. 17(금)
- 원서접수: 2000. 11. 20(월) ~ 11. 24(금)
- 전형일시 및 장소: 2000. 11. 25(토) 14:00, 본 대학원 (경주캠퍼스 진흥관 1층)
- 합격자발표 일시: 2000. 11. 29(수) 예정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http://www.dongguk.edu

동약론

자본 앞에 당당한 신문이 아름답다

공동이용구역



“저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입니다...”
 지난 중간고사 기간, 도서관에는 한 장의 대자보가 붙었다. 저녁시간마다 들려오는 종물소리가 '시끄러워'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의 글은 많은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저는 여학생입니다...”
 바로 다음날 붉은 또 한장의 대자보, 종물패 활동을 하고 있다는 한 여학생이 쓴 이 대자보는 바로 전날 붙어있던 대자보 내용을 반박하고 있었다.

이 두장의 대자보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도서관 이용과 종물소리'에 대한 논쟁의 불을 당겼다. 의견을 모으는 대자보는 수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빼곡히 채워졌으며 하루 종일 대자보 앞을 메운 학생들은 사라질 줄 몰랐다.

“학생의 기본권인 학업이 종물소리 때문에 침해당하고 있다”
 “학업이 학생들의 기본권이라면 종물패 활동은 학생의 개성권인데, 우리의 개성권은 탄압받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 누구의 주장 하나 틀린 것 없다.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혹은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즐기는 입장에서 모두 나름의 논리로 타당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논쟁이 단지 논쟁으로만 끝맺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근본적인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대안을 제시한다해도 그것을 실현하는데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계속되는 항의와 요구에 따라 종물패가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고심하고 있지만, 교내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얽혀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학교의 시설관리 담당자가 교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장소를 살펴보고 방음업자도 만나 보는 등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지만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다.

중간고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종물 연습을 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어 따라 이 논쟁은 어느 정도 수그러든 상태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논쟁은 해를 거듭할 것이다.

표은영 기자
 pisik20@dongguk.edu

이제까지 정권의 정치적 개입은 언론 자유의 가장 큰 장애였다. 역대 정권의 통제와 통제 속에 기업화한 중앙 일간지들의 행태는 자본의 개입이라는 또 다른 폐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권력화한 언론 속에서 기생하는 언론 종사자들의 폐해 역시 적지 않다.

이제 신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폐해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수준을 벗어났다. 아니 기존의 신문 기업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언론의 자유'와 무관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다.

최근 시민언론운동 단체들이 신문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정권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 못지 않게 신문을 신문 본연의 자세로 되돌려놓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문개혁의 주안점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즉 신문 소유주에 의한 '사유화'를 방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문 소유구조 개혁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현재 신문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정치 권력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고 있는 반면 자본의 속박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언론인들의 편집 자율권이 극도로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 현상은 무엇보다도 신문의 소유구조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신문의 소유를 통제하는 것은 전통적인 언론 자유의 논리와 배치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신문 소유 통제가 언론 자유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언론자유와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첫째, 소유가 집중된 재벌 언론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권언 유착을 강화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수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었다. 심지어 언론은 재벌 언론, 즉별 언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해야 할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소유주인 재벌 또는 즉별 체제의 비리에 눈을 감거나 오히려 옹호하기도 하는 왜곡된 언론 행위를 해왔다.

둘째, 이러한 파행적인 언론 행태가 발생하는 원인은 공적 성격을 지녀야 하는 언론의 소유가 자본 또는 즉별 체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소유구조의 분산을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발전 경향은 사회적 자본의 집적을 통한 자본 축적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물며 언론 산업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특성으로 하는 만큼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셋째, 재벌과 즉별의 소유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유의 금지 또는 제한은 소수에 집중된 언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경쟁적 언론 체제를 형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근본적으로 시장의 정상화가 목적이 아닌, 사회 전체 여론의 다양성 확보 또는 언론 권력 분산이라는 신문의 공적 성격의 회복 논리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유 집중을 해소한다 하여도 경영의 논리 즉 상업적 논리가 언론의 활동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자유로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언론을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편집권의 독립이 필수적이다.

편집권의 독립만이 언론을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편집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채택하고 있는 편집규약은 언론의 편집권에 대하여 소유주를 비롯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편집진의 집단적 권리를 못박고 있다. 편집책임자, 간부, 직원의 임면, 편집방향의 변경, 소유주나 소유상태의 변화 등에는 반드시 편집진을 대표하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물론 편집규약의 채택이나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이 또한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우리 현실은 소유주의 기업 지배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선일보 왜곡보도사례

최장집 죽이기? 또 한번의 용공조작



그 동안 기성 언론은 특정인을 무차별 공격하여 개인의 명예와 사상을 유린해왔다. 특히 조선일보의 극단적 사상공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98년 당시 전국을 썩갈 논쟁으로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최장집 사상검증사건' 역시 이러한 조선일보의 시대착오적인 언론메카시즘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대통령 자문 국가정책기획위원장이었던 최장집 교수의 저서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과 '한국민주주의의 이론'을 분석한 월간조선의 왜곡보도에서 시작되었다. 월간조선은 최고수가 "6·25는 역사적 결단이며 한국전쟁의 최대 희생자는 북한 민중일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고수의 논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글의 인과관계를 무시한 채 짜깁기한 것으로 객관적 검증이라 볼 수 없다. 더구나 '사상 검증'이라는 '신문 그 이상의 권력'을 행사한 것은 조선일보가 급기야 언론사의 역할을 망각하고 사상검열기관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반박을 듣기에 충분했다. 최장집 교수의 사상검증 논란은 최고수의 해임이라는 역자논리를 세운 조선일보가 시민단체들과 정부의 거센 비난을 받아 일단락 되었다.

전두환 향한 이중적 보도 태도

지난 95년 겨울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소환에 불응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미 권력의 끈을 놓친 전씨에게 언론은 비판을 퍼부었고 지난날 전씨를 찬양한 조선일보조차 사죄하라며 호통을 쳤다. 조선일보는 전씨의 성명서 낭독 다음날인 95년 12월 2일 "그 원죄에 대한 자백이 없는 한 전씨의 백마디 말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광우학살과 권력형 부정부패를 실토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전두환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매년 3월 3일 취임 기념일 전후에 '전두환은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정의사회를 실현한 영도자'로 추양했다. 취임 1주년인 82년 3월 2일자 '자율사회 문을 열었다'라는 기사에서는 "통일문제에서 전 대통령은 가장 현실적이며 과감한 정책을 제시했다"고 정권에 대한 아부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군의 정치개입이 빚어낸 가장 큰 민족사적 비극인 광우학살 당시 조선일보는 계엄군의 전남도청 무력진압 다음날인 5월 28일자에 이런 사실을 실었다. "30년 전 6·25의 국가적 전란 때를 빼고는 가장 난잡했던 사태에 직면한 비상계엄군으로서 군이 자제에 자제를 거듭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15년 전의 기사를 읽은 것인가.



80. 8. 23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전두환 ?

'서울 물바다' 설의 진실은?

조선일보의 특종화된 오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강산 댐 건설' 관련보도이다. 86년 북한이 금강산 댐 공사를 시작하자 조선일보는 "댐의 수량이나 물길로 보아 댐을 터뜨릴 경우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며 이에 대응하는 '평화의 댐' 건설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후 조선일보가 만들어 놓은 여론에 의해 정부는 '평화의 댐' 건설에 착수했고 조선일보는 성공을 걸어 북한의 수공을 막아야 한다며 성금 모이기 운동에 앞장섰다. 성금 모이기 운동으로 조선일보는 순진한 국민의 주머니에서 6백여억원을 털어 정부의 '평화의 댐 건설'에 바쳤다. 그러나 북의 '물 남침' 사건은 "정부의 발표 중 댐 높이나 저수량은 과학성과 현실성을 도외시한 채 발전용량을 근거로 무조건 역산출한 것"이라고 밝혀졌다. 또한 12월 25일 북한의 '금강산발전소 건설에 관한 백서'로 인해 북의 '물 남침' 사건은 정부와 언론의 합동조작으로 드러났으나 조선일보는 이를 끝날때 시인하지 않았다.



정리=사회부
 society@dongguk.edu

자연과학연구원 초청 강연회

자연과학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11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디 많이 참석하시어 관련분야의 유익한 학술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 일시 : 2000년 11월 2일(목) 14:00 ~ 18:00
- 장소 : 세미나실(다학관 2층)

11월 2일 특별초청국제 세미나

- 주 제 : Chitin & Chitosan
- 연 사 : 김용범 (서울산업대 자연물화학) 한상문 (이화여대 생체분자) Seichi Tokura (Kansai Univ.) Hirishi Tamura (Kansai Univ.)

11월 13일 학술회의

- 주 제 : 불록공중합체와 결합된 Plasmid DNA의 Self assembly에 관한 연구
- 연 사 : 박종상 (서울대 생화학)

11월 17일 학술회의

- 주 제 : Proteomics, an emerging science in the post-genomic era
- 연 사 : 한문희 (포테로렌(주))

자연과학연구원 초청 강연회

자연과학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11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디 많이 참석하시어 관련분야의 유익한 학술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 일시 : 2000년 11월 3일 13:30 ~ 18:00
- 장소 : 동국대학교 90주년기념문화관 덕암세미나실
- 주최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260-3513, 3240)
- 후원 : 세계정치경제 연구소

● 진행순서
 13:30~13:40 개회 송사회 : 박종훈 (사회과학연구원 간사, 윤리문화학과)
 13:40~14:00 인사 및 기초발표 김진철 (사회과학연구원장)
 14:00~15:40 제1분과 주제 발표 및 토론
 사 회 : 김진철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제1주제 '21세기 세계질서와 남한 체제의 변화 전망'
 · 발 표 : 유광진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토 론 : 김도중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제2주제 '21세기 세계질서와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
 · 발 표 : 전현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제3주제 '동북아 역학구조 동향과 한반도 통일'
 · 발 표 : 최대석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 토 론 : 김학성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5:55~17:55 제2분과 주제 발표 및 토론
 사 회 : 이상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제1주제 '남북한 헌법질서와 한반도 통일논의'
 · 발 표 : 정영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 토 론 : 정용석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제2주제 '남북한의 통일전략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전망'
 · 발 표 :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 토 론 :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제3주제 '21세기의 남북관계에서 비평직한 통일논의변인'
 · 발 표 : 류길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 토 론 : 김용서 (이화여대 행정학과)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세미나

21세기 세계질서와 한반도 통일

● 일시 : 2000년 11월 3일 13:30 ~ 18:00

● 장소 : 동국대학교 90주년기념문화관 덕암세미나실

● 주최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260-3513, 3240)

● 후원 : 세계정치경제 연구소

● 진행순서
 13:30~13:40 개회 송사회 : 박종훈 (사회과학연구원 간사, 윤리문화학과)
 13:40~14:00 인사 및 기초발표 김진철 (사회과학연구원장)
 14:00~15:40 제1분과 주제 발표 및 토론
 사 회 : 김진철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제1주제 '21세기 세계질서와 남한 체제의 변화 전망'
 · 발 표 : 유광진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토 론 : 김도중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제2주제 '21세기 세계질서와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
 · 발 표 : 전현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제3주제 '동북아 역학구조 동향과 한반도 통일'
 · 발 표 : 최대석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 토 론 : 김학성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5:55~17:55 제2분과 주제 발표 및 토론
 사 회 : 이상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제1주제 '남북한 헌법질서와 한반도 통일논의'
 · 발 표 : 정영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 토 론 : 정용석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제2주제 '남북한의 통일전략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전망'
 · 발 표 :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 토 론 :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제3주제 '21세기의 남북관계에서 비평직한 통일논의변인'
 · 발 표 : 류길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 토 론 : 김용서 (이화여대 행정학과)



구승희 교수의 환경이야기

(3) 사람이 문제인가?

보편적으로 합의된 대답은 아니지만, 환경문제는 좁은 의미에서 대기와 수질의 오염, 지하자원의 감소, 야생 생물과 그들의 서식지 파괴, 지구온난화로 인한 사막의 확대와 경작지의 축소 등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 생존 조건의 악화 현상을 말한

다. 반면에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을 지탱해 주는 생명 유지체계의 파괴로 인하여 야기되는 생태계의 균형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난 40년간의 노력은 생태학적 사고방식에 크게 의의

해 있다. 환경론자, 생태주의자들은 자연 생물과 자연계의 복잡한 상호작용 및 종 상호 간의 장기적이고, 예기치 못한 결과를 해명해 주는 생물학의 인접 과학인 생태학으로부터 인간의 대(對)자연 관계 및 자연을 다루는 실천적 활동의 귀결로 생기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오늘은 '사람이 환경문제의 주범'이라는 관점이 타당한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환경문제가 급속한 인구증가 때문이라는 주장은 가장 매력적인 인과적 해명이다. 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주장된다. 세계 인구는 매 35년마다 두 배로 증가했고, 인구증가는 인간의 경제활동의 산물은 물론이고, 그들이 소비하는 식량, 에너지, 광물 자원, 심지어는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했으며, 더 많은 경작지와 목초지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는

삼림의 남용, 토지의 침식으로 이어져 결국 오염 증가와 화석연료와 광물자원의 고갈을 초래했다. 지구는 현재의 인구 증가율을 지탱할 수 없으며, 결국 인구의 제로성장이 달성되지 않으면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 자연 대지를 훼손한 총량과 인류공동체가 누대(累代)에 걸쳐 거주해 온 대지를 배수공사, 경지정리, 기술을 이용하여 보존해 온 총량을 비교해 보면 '사람이 문제다'라는 주장은 별반 설득력이 없다. △ 최근 몇 년 씩을 제외하고 인간의 상품소비는 대지를 오염시켰다가보다는 늘 자연의 순환체계 내에서 소비되었으며, △ 인구증가로 인한 인간과 대지의 부조화는 전지구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구의 일부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이

며, 1970년대 이후 남사하라 지역의 황폐화는 인구증가 때문이라기보다는 가뭄과 식민지 정책 때문이었다. △ 사람이 많아서 지구자원이 고갈된다는 주장은 더욱 역설적인데, 그것은 인구증가가 낮은 서구 산업국가의 경제활동의 부산물이지, 인구증가가 높은 제3세계가 저지른 일이다. 결국 환경문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사람 때문'이라는 주장은 부적절한 것은 아닐지라도 환경문제의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다. 오직 인구가 줄어들지 않으면 환경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네거티브 논증은 환경문제 해결의 올바른 길이 아니다. 인간의 활동이 때로 자연에 해악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암세포는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영화 속 '신화'는 계속된다

분단·반공영화, 공산이데올로기 억압하던 신화기능

2000년 한국영화계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공동경비구역 JSA'가 향후 10년간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되던 '쉬리'의 흥행기록을 깰 수 있느냐에 쏠려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 순위가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역대 한국영화 흥행 1.2위가 모두 분단 상황을 소재로 삼은 영화라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을 단지 막대한 제작비를 들인 영화가 흥행에서도 성공한다는 일반적인 산업론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뭔가 궁부하다.

현재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공동경비구역 JSA'는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영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50년이 넘게 이 땅에서 양산되었던 분단·반공영화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고찰되어야 하는 일종의 영화 사회학적 부산물인 것이다.

분단·반공영화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비단 '공동경비구역 JSA'의 등장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반공 이데올로기의 시너 역할만을 담당한 저급 쓰레기물'로 취급해 왔던 분단·반공영화는 한국 영화의 정체성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고독한 영상의 사색자인 영화작가 이만희도,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거장 유현목도, 남과 북을 누비며 영화를 만들던 풍운아 신상욱도, 한국 영화 미학의 심장 임권택의 작품 세계에도 분단·반공영화는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분단·반공영화의 전체적인 틀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이론적 틀은 무엇인가? '신화론'이 가장 적절한 방법론이라고 본다. 말리노프스키의 지적대로 신화는 단순히 텍스트 속에서 분석할 것이 아니라 신화가 통용되는 사회 속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분석해 내야만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말리노프스키와 켈시어의 신화론은 우리에게 '분단·반공영화'에 나타난 신화의 현대적 유의미성을 밝혀 내는데 단초를 제공한다.

신화의 현대적 의미

인류학자인 말리노프스키(B. Malinowski)는 신화를 "오늘날 우리가 소설 속에서 보는 허구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실로써 지속적인 세계와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그의 신화접근방식은 일상생활의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말리노프스키의 주장에 따르면 "신화는 정당성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며 한 사회의 위기상황을 통합하는 작용을 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신화의 기능이 현대 사회 속에서도 변함없는 의미를 지니

고 있다는 점과 그 기능은 바로 사회 유지 기능을 알 수 있다.

신화는 전통에 대해 보다 큰 가치나 권위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모든 문화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말리노프스키에게 신화는 결코 한 곳에 고착되어 버린 고립된 상태가 아니다. 신화는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모든 역사적인 변화는 그와 관련된 신화를 산출해 내고 있다.



쉬리 VS 공동경비구역



이와는 달리 켈시어(E. Cassirer)는 신화를 처음부터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그는 신화가 단지 원시부족 사회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정치적인 신화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켈시어의 신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신화적 사고(思考) 세력'의 존재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현대 정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또한 가장 두려운 신화적 사고의 세력은, 결국 정치적 신화를 이용하려는 세력의 등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신화라는 개념은 원시 사회에서 신화가 차지했던 기능, 즉 사회 유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정치적 신화의 등장은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켈시어는 그 사회가 추구하는 일이 위험하고 그 결과가 불확실할 때 정치적 신화가 생긴다고 진단한다. 그는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이후 맞게 된 붕괴 위기를 예로 들면서 모든 정상적인 회복 수단이 수포로 돌아간, 그래서 더 이상 강구해 볼 정상적인 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야말로 정치적 신화들이 성장하고 흥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절호의 토양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신화, 특히 현대 사회를 특징짓는 정치적 신화는 이데올로기의 극단적 양태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 신화가 반대

시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정작 중요한 점은, 신화적 양태가 과연 현대에도 나타나느냐 아니라 신화의 사회 유지 기능이 현대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켈시어는 현대의 정치적 신화들은 어떤 행동을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사법 제도와는 분명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정치인 것이다. 정치적 신화는

마치 뱀이 먹이를 공격하기 전에 그것을 마비시켜 굳어지게 하는 것처럼, 오히려 사람들의 행위를 지배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먼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부터 착수하는 것이다.

'분단·반공영화'의 궤적

분단영화는 6.25라는 민족 비극과 그 이후의 분단이라는 한국적 상황에서 나온 영화를 말한다. 또한 분단영화는 해방 이후 한반도 분단의 원인 탐구와 분단으로 인한 상흔 등을 다룬 작품도 포괄한다. 한편 분단영화는 철저하게 이분법적인 대립을 통해 체제 우호적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반공영화'를 한 지류로 삼고 있다.

최초의 분단 극영화인 한형모의 '삼백을 뚫고'(1949)를 시작으로 1950년대 분단·반공영화의 정점인 이강천의 '괴아골'(1955)이 등장한다. 패전한 빨치산의 집단 생활을 그리며 이데올로기에 대한 회의와 해체, 남녀 대원 사이의 사랑과 갈등을 그리며 이 영화에서 남한의 승리는 보다 직접적이고 체제 우호적으로 그려진다.

1960년대는 분단·반공영화의 본격적인 중흥기로 볼 수 있다. 5·16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군사정권의 강력한 지원 아래 김기덕의 '7인의 해병'(1961)이 만들어져 성공하자, 그 뒤를 이어 분단과 반공을 소재로 삼은 많은 영화들이 쏟아지게 된다. 신상욱의 '빨간 마후라'(1964), 이만희의 '돌아오지 않는 해병'(1963)과 '7인의 여포도'(1965) 등이 그러한 영화의 예이다.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국영화산업의 전반적인 침체와 맞물려

분단영화 역시 침체기를 맞는다. 이 경우 영화제작 편수에서보다는 영화의 질에서의 퇴조라는 말이 어울린다. 4차 영화 개정법으로 인해 분단영화에 대한 검열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70년대 분단영화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도구로 전락하였고 이와 더불어 대중의 관심에서도 멀어졌다. 70년대 분단영화 퇴조현상은 임권택의 '길소뜸'(1985)이 나오기 전까지 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90년대의 '남부군'(1990), '태백산맥'(1994)등으로 이어진다.

'분단·반공영화'에 나타난 신화의 현대적 유의미성

분단·반공영화가 역대 정권의 체제 유지를 위해 감시와 처벌이라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실어 나르는 기제로서 작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반공이데올로기는 비단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방과제 역할뿐만 아니라, 남한 내부의 좌파 집단의 저항까지 억압했던 신화로 기능했다.

또한 단순한 반공이데올로기가 아닌 실존의 문제들까지 봉합시키려는 균열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정통성을 상실한 역대 정권의 사회유지 기능으로써 작용된 것이다.

그리고 말리노프스키에게 신화가 결코 한 곳에 고착되어 버린 고립된 상태가 아닌, 끊임없이 역사적인 변화와 맞물려 재생산되듯이 분단·반공영화에 드러난 분단의식 역시 많은 정치, 사회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모습을 거치면서 거듭나고 있다.

1960·70년대의 분단·반공영화가 체제 수호적인 이데올로기의 편협함과 일방성을 보여주었다면, 1980년대에는 개인사에 바탕을 둔 갈등 해소의 지향점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들어갔다.

이러한 분단상황에 대한 집단적 광기의 흔적은 1990년대 들어 '남부군'(1990), '태백산맥'(1994) 등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대상의 전이를 보여준다. 즉, 전쟁의 상흔이라는 과거 지향성에 초점이 모아졌던 분단영화의 갈등구조가 비로소 아주 조금 씩이나마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켈시어가 말하는 '신화적 사고(思考) 세력'은 분단·반공영화를 통해 정치적 신화를 생산하고 이용해왔다. 이러한 정치적 신화의 탄생은 정확히 대중상의 행보와 일치한다. 1966년부터 제정되었고 1987년 제26회까지 존속해왔던 반공영화부문은 '우수영화'라는 이



름으로 특별히 의화위터로 보상해 주었다. 이를 계기로 반공영화는 한국의 국책영화로서 확실히 자리잡게 된다. 지배집단이 정치질서와 분단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 동원에 영화가 적극적으로 기능한 것이다.

'간첩 리철진'에서의 회화화된 간첩의 모습과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남북한 병사간의 우정을 통해 드러나는 분단의식은 가시적으로 사라져버린 구시대적 산물로 위장되어 은폐되어 있을 뿐이다. 분단의식은 결코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신화'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도 독일의 분단문학이 이루어낸 것처럼, 분단체제 아래 살고있는 민초들이 겪어야 하는 부적응과 불화, 좌절을 진솔하게 묘사해 내야 한다.

이런 결실로 인해 우리는 분단의 극복 없는 민족적 고통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으리라.

이 중 승 대학원 기물학술제 cine focus 팀장/ 영화와 석사 3학기

연구현장을 찾아서 - 활성형인간 에도스테틴 개발



김철호 교수(한의대 한의학)

암종양 영양공급원 억누르는 물질 개발

당뇨병 연구·한약항암제 연구 매진할 예정

최근 의학적 연구결과 인체 질환 가운데 특히 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암이란 암세포가 몸의 정상적인 통제를 벗어나 무한정 분열·증식하는 것으로, 암이 불치의 병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암세포가 생기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수술 후에도 증상이 재발하기 때문이다.

본교 김철호 교수(한의학)는 현재 10여명의 연구원들과 함께 이러한 암 치료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암 연구에서 '혈관신생' 즉, 암 종양이 증식할 때 영양공급 통로로 사용되는 미세한 혈관의 형성은 암 조직이 덩어리로 변화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덩어리진 암 조직의 증식과 활성화는 '혈관신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교수와 연구진은 암 치료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혈관신생 억제물질' 다시 말해, 암 증

양의 영양공급원을 억누르는 물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김교수는 인체 내 암의 생성·전이 등의 과정에 따라 새로운 혈관생성을 담당하는 혈관 벽 조직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과잉증식과 새로운 혈관 합성을 억누르는 '활성형의 인간 에도스테틴'을 찾아내 억제제로서의 용도와 제조방법을 개발했다.

이에 김교수와 연구진은 "암 생성 과정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거듭되는 실험 실패 등이 매우 힘들었다"며 그간의 노고를 밝혔다.

지난 10년에 걸쳐 계속돼 온 김교수의 연구는 이 발명을 바탕으로 현재 암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암 진행 경로를 최초로 밝혀냈다.

또한 간암, 뇌암, 자궁암의 암 전이과정 가운데 생성되는 혈관 신생인자의 발현을 억제할 치료제 개발에 한약재를 도입해 연구하고 있다. 김교수에 의해 밝혀진 연구결과들은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과 토마스 제퍼슨 대학에 소개되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당뇨병의 생성 과정 가운데, 면역에 의한 생성 경로를 최초로 해명하고 한방에서의 치료법을 개발중이며, 인체 골(뼈) 대사 및 신경질환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중이다.

이같이 여러 가지 활발한 연구를 진행중인 김교수는 마지막으로 '의과·한의과 대학에 생물 관련 학과 출신의 대학원 입학 제도나 생명과학 관련 대학원이 없기 때문에 학내 공동연구가 어렵다'며 연구 인력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정미혜 기자 ka@mail.dongguk.ac.kr

언론비평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과 언론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

지난 10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았다. 그것도 노벨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평화상이었다.

언론도 경축열기를 전하는 데 전력을 쏟았다. 방송사들은 노르웨이에 기자를 파견해 노벨상 발표를 현장에서 중계했으며 신문은 10여면에 걸쳐 노벨평화상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노벨평화상에 대한 기사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20일과 21일 이틀간 열린 아셈 정상회의에서 노벨상 수상에 대한 기사가 반짝 등장했으나 이후엔 신문지면에서 노벨상 수상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선정한 노벨위원회는 수상이유로 '민주주의와 인권증진', 그리고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에 기여한 공로' 두가지를 꼽았다.

그러나 언론은 민주주의와 인권증진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해 김대통령의 과거 행적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미래지향적인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민주화운동의 기반으로 자리잡아라”

명예회복 유형확정 · 대상자 범위 확대해야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5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8월 10일 신청접수 공고를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달 20일까지 1차 접수를 끝내고 현재 1, 2차 사실조사와 심사단계에 들어가 있다. 법률에 근거한 적용시기는 1969년 8월 7일 3선개헌 발의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접수마감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

이 법은 제정되기까지 422일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국회 앞 농성투쟁을 통해 얻어낸 소중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법은 제정되기부터 해직자, 학사정계자, 유죄확정판결자를 포함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내용이 대단히 미약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의 몫지 않게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시위 중에 연행되어 바로 군에 입대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초를 겪은 강제징집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장기간의 수배생활을 견뎌낸 수배자, 민주화운동을 하였던 전력 때문에 임용이 되지 않은 교대·사대 졸업생들이다.

세번째는 시행령에 규정된 항거의 개념을 법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이다. 법에서 민주화운동의 개념은 대단히 추상적이며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들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 당시 막판까지 법무부와 관련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거의 개념을 삽입시키

야 한다. 우선 명예회복 조치의 유형 확정이 필요하다. 법과 시행령에서는 명예회복 조치 유형의 결정을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형을 확정하여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명예회복 조치의 유형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애초 시행령에 명예회복 조치 유형을 담으려고 하였으나 법무 등의 반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이다. 법에서는 이 법의 대상자라 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자, 민주화운동으로 상(傷)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 해직자, 학사정계자, 유죄확정 판결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 못지 않게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시위 중에 연행되어 바로 군에 입대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초를 겪은 강제징집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장기간의 수배생활을 견뎌낸 수배자, 민주화운동을 하였던 전력 때문에 임용이 되지 않은 교대·사대 졸업생들이다.

세번째는 시행령에 규정된 항거의 개념을 법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이다. 법에서 민주화운동의 개념은 대단히 추상적이며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들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 당시 막판까지 법무부와 관련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거의 개념을 삽입시키

려 했고 관철시켰던 것이다. 항거의 개념에서 민주화운동이 사회 여러 방면에서 전개된 모든 운동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위 세가지는 이 법의 시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다.

이 법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과거의 독재정권과 현재 정권이 크게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민족민주운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이를 법 제도로 인정 받는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 법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과거와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종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사무국장



본교 동문 50여명 명예회복 · 보상 신청

심의 위원회 접수 ... 90일 이내에 보상여부 결정

'긴급조치 시대'라 불리던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정권은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주화운동에 극심한 탄압을 가했다. 학내에서도 유신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당시 본교에 재학 중이던 안재환(정의·중퇴)씨도 시위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안재환씨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어 실형 2년을 언도 받는다.

안재환씨는 형집행정지 1년 만에 석방되지만 이듬해 열린 서울역 집회에 참가해 다시 구속된다. 이후 노동운동 등으로 수 차례 투옥되기를 거듭하며 천일이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1차 명예회복·보상 접수가 지난 20일까지 진행되어 본교 민주동문회 회장인 안재환씨도 1차접수에 명예회복을 신청했다.

민주동문회는 민주화운동보상법이 발표된 지난 해 12월부터 민주화 운동을 했던 동문들의 명예회복·보상을 위해 자료를 발굴, 수집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로 인해 안재환씨 이외에도 동문 30여명 또한 민주동문회를 통해 명예회복 신청이 가능했다.

전교조, 노동단체에서도 보상법에 해당하는 본교 동문 20여명의 명예회복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외에도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부상당한 2명의 동문도 보상 신청서를 냈다. 보상 신청자인 박태수씨(국문·90졸)는 86년 아시안 게임 반대시위에 참여해 경찰이 던진 돌에 한쪽 눈을 실명했으나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1차 보상 신청기간 동안 박태수 씨

는 당시 시위도중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학교로부터 발급받아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보상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시·군의 기초조사를 거친 뒤 심의위원회에 제출되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된다.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한 최종 신청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앞으로 2차례 정도 추가 접수가 실시 될 예정이다. 민주동문회는 앞으로도 본교 동문 250여명이 추가로 명예회복·보상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민주' 되기엔 턱없이 '좁은문'

개념규정 논란 ... 공권력 간접개입에 의한 피해·사회민주활동 포함돼야

지난 9월 29일 기독교회관에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조희연(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와 박석운 관악민주포럼 대표, 도천수 민주사회운동연합 공동의장 등 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운동을 벌여 온 시민단체의 대표들과 각 대학교수들이 참석해 '민주화운동의 개념규정' 등 민주화운동보상법의 문제점들을 논의했다.

우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민주화운동의 개념규정에 대한 사안이 떠올랐다. 조희연 교수는 명예회복법이 민주화 운동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여 민주화운동이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수는 "현행법으로는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저항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으로만 규정하게 된다"며 "공권력의 간접개입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배경으로 진행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저항행위도 사례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승환(고려대) 교수는 82년 미 문화원 방화사건 등 직접적인 공권력 개입여부와 관계없는 사건들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미 문화원 방화사건은 미국에 대항하여 남한의 민주화를 도모한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예회복법 제2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한 권위주의적 통

치에 항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는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 등을 전제로 성립하는 반공주의적 질서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명예회복법은 그 의미를 실질적 민주주의인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투쟁뿐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활동도 민주화운동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조희연 교수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민주화운동과 앞으로 펼쳐질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립한다'라는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화 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현재화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개정집필작업 △젊은 세대들에게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아시아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위에 제시한 논의들은 이번 개정이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주화 정신을 새롭게 계승·발전시키고 현재화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조희연 교수의 의견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지난달 29일 기독교 회관에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 "문제 많다"

정당한 보상 통해 진정한 명예회복 이뤄져야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를 당한 이들의 보상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들은 특별법 9조에 명시되어 있는 생활지원금에 관한 조항은 생활보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과 다르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생활지원금을 보상금 형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사실상 탈법이라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정태상 변호사는 "유죄 판결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고서도 실질

적인 보상이 아닌 생활지원금의 형식은 특별법 제1조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법 9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이 정부의 자금이 아닌 기부된 성금에 의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운영이 어려운 전망이다. 명예회복자도 관련된 유죄판결자, 해직, 학사징계자도 생활지원금이 아닌 정당한 보상 규정을 통해 시행해야 진정한 명예 회복이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대상자

특별법의 대상자 가운데 실정법인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불투명한 현실이다. 특별법

상 국가보안법 관련자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법 2조 1항과 시행령 2조에 따르면 권위적인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라도 그 활동의 목적이 민주화운동이라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자등 실정법 위반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포함시킬지는 분명하지 않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7월 '남민전 사건 등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동문칼럼



정 광 철
동원산업노조 사무국장·철93졸

세계화가 불러온 노동자의 절망

통합된 한 사람이 회사를 떠났다. 근래에 들어 늘상 있는 일이다.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지만 회사를 떠나는 사람의 수는 좀처럼 줄지를 않는다. 노동조합 간부를 맡고 있는 직무상의 특성때문인지는 몰라도 '한달 쪽 쉬고 살길을 찾아봐야지' 하며 뒤돌아 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쉬어본다. 대개 퇴사자는 변화된 기업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이고, 확실한 창업 준비를 하고 나간 사람들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

IMF 사태 이후 더 어려워진 경제상황 임금과 고용불안 문제 심각

며칠 전 아내와 조금 다투었다. 그 다툼의 원인은 항상 돈이다. 직장생활 7년에 겨우 빚을 얻어 장만한 13평짜리 아파트의 이자를 내느라고 우리집 살림은 아주 빠듯하다. 게다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분유값도 대야 하는데, 기를 값 인상이라니.

어느 구석에도 밝은 소식은 없다. 아무리 절약을 외쳐보아도 부모님 용돈 한번 넉넉하게 드리가 어렵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돌 지난 아기를 누군가에 맡기고 아내가 직장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IMF 이후 우리는 직장에서 버티기도, 가정을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가 되었다. 한마디로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다. 대학을 졸업하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직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키우

기보다는 점점 애소해 지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비애를 느끼면서도 삶의 질적 상승을 꿈꾼다. 그것은 마치 정상을 향해 무작정 오르는 에베레스트의 행진과 같지 않을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숙고하다보면 노동자로서의 내 생활은 세계화된 자본의 큰 틀에 कै어 맞추어져 있음을 느낀다. 신자유주의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는 임금 및 고용불안의 문제와 심지어 먹거리에서 문화까지도 초국적 자본의 정

책으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다. 소박한 한 노동자의 삶은 그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굴절되고 있다. IMF이전 170만원을 받던 정규직 노동자가 IMF이후 1년 계약의 비정규직으로 바뀌어 백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아이에게 주려고 미국의 유전자 조작 콩으로 만든 두유를 사고, 비디오가게에서 헐리우드 액션 영화 한편을 빌려다보며, 값싼 칠레산 포도를 먹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 10월 20일 올림픽공원에서 잠실운동장으로 이어진 'ASEM 반대', '세계화 반대' 시위의 물결은 세계자본의 공격에 맞선 전 세계민중의 힘찬 저항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기도 하다.

거짓된 꿈과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김현중 기자 dizzo20@dongguk.edu

e-Business 정책 아이디어 공모

본원은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중앙일보사, 매일경제신문사, 전자신문사와 공동으로 "e-Business 정책 아이디어·우수추진사례 공모 및 D/B 구축사업"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는 e비즈니스에 대한 다양한 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는 한편, 기업들의 성공적인 e-Business 전환 사례를 발굴·보급함으로써 국내 전자상거래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반부, 학생부로 나누어 접수함으로써 대학생, 대학원생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입상될 수 있으나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행사명 : "e-Business 정책 아이디어 및 우수추진사례 공모"
2. 주 제
 - 1) 정책 아이디어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아이디어로서 애로점, 필요성, 추진방안, 기대효과 등을 자유롭게 기술.
 - 2) 추진사례 : 중소기업의 전통적 비즈니스 수행방식에서 e-Business로의 전환 성공사례로서 기존의 사업방식과 문제점, 진행과정, 진행상 애로점과 해결, 전환후 성과, 향후 발전 방안등을 골자토하여 자유롭게 기술. (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3. 응모대상
 - 1) 정책 아이디어 :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 2) 추진사례 : 분교 해당사항 없음.
4. 응모요령
 - 1) 제출물분량 : A4용지 20장 내외의 본문(참고문헌 및 부록 별도 첨부)
 - 2) 접수기간 : 2000. 11. 12(일) - 20(월)
 - 3)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만 함. yechoi@kiec.or.kr로 전송후 필히 02-528-5014로 전화하여 확인
5. 발표 및 시상 : 2000년 12월 초 개별통보 및 전자거래진흥원 웹사이트(www.kiec.or.kr)에 공고
6. 문의처
 - 1) 전 화 : 02-528-5014.
 - 2) e-mail : yechoi@kiec.or.kr
 - 3) 전자거래진흥원 웹사이트 : www.kiec.or.kr

전자거래진흥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

1. 선발대상 : 교직과정이 승인되어 있는 학과(전공)에 2000학년도 현재 2학년 2학기 재학중인자
2. 신청기간 : 2000. 10. 30(월) ~ 11. 3(금)
3. 접 수 처 : 희망자 소속학과(전공) 사무실
4. 선발방식
 - 가. 교육부승인 인원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 나.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중 인성·적성 및 성적(1학년 1·2학기 및 2학년1학기) 등을 참작하여 학과(전공)에서 선발한다.
5. 교직과정 이수절차
 - 가. 교직과목의 20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나. 전공학점이 최소 42학점이상 이어야 한다.
 - 다. 표시과목 관련학과(전공)의 교직기본이수영역별로 1과목이상씩 대체 교과목을 이수(9학점이상)하여야 한다.
 - 라. 상기 가,나,다의 취득학점이 각각 평점 80점(B+)이상이어야 한다.
 - 마. 교직과목중 「교육실습」은 4학년 1학기에 '4주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 공업계 표시과목의 경우 반드시 「산업체현장실습」도 '4주간' 이상 필요하여야 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범대 교학과(☎ 2260-3380)로 문의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중 교직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복수(학위)전공 신청기간(2000. 11. 6 - 11. 8)에 학사지원실로 신청하여 선발되어야 함. (교직복수전공 신청은 학위복수전공 신청으로 대체함.)

사 범 대 학

WEB TOEIC 강좌 개설

1. 내 용
 - 10월 30일에 신설되는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Web TOEIC 온라인 강좌
2. 수강방법
 - 언어연구교육원 홈페이지(http://today.dongguk.ac.kr)에서 수강생 본인의 진단 토익을 통하여 자신의 학습수준을 평가한 후에, 본인의 점수에 따라 학습 Level을 신청
3. 특 징
 - 인터넷 활용을 통한 토익 교육 프로그램
 - 수강생 자신이 주별 학습량과 학습 진도를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학습
4. 토익과정
 - On-line 상에서 진단 토익 시험을 통해 자신의 점수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을 선택하여 수강
 - 학습 프로그램은 과정마다 INTRO, TOEIC L/C, GRAMMAR, TOEIC R/C의 네 파트로 구분.
 - 수강생들은 각 16 Units(총 80Units)으로 이루어진 수업중 12 Units 이상 (70%)을 학습한 후, 다음 단계를 수강
4. 기타 학습과정
 - 토익과정 이외에도 부가 학습과정으로 Business English, Global Cafe, 상황별 주요 표현 등의 생활영어에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
 - 언어연구교육원 홈페이지 http://today.dongguk.ac.kr

언어연구교육원

소나기

김영삼이 우리학교에서 강연을 한다?



우리는 열심히 듣고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망한 사람으로부터 망하지 않는 법을 배우야 하기 때문이다. 뉴스에 나왔군! 환영 OR 원봉. 특강주제 : 나라 망치기. 일주일이면 김영삼만큼 한다. 말할 기회를 주는게 당연하다. 스스로 바보임을 선언하고 다니는 왜 막나? △동아일보 사장도 함께 불러서 특강을 하고 학생들에게 '세기의 코미디' 라고 선전한다. △똥 특강? 가르칠 게 있나? 경제 팔아먹는 법? 나라 망치는 법? △강의하는 거야 정치인으로서 배울 점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아닌가? △자아와 명성을 듣게 만들어 새 사람이 되게 한다. △명색이 전직 대통령인데 돌 맞아 죽는 걸 바라진 않는다. △입장료가 비싸지 않을까? 이주일일 불가능한 초특급 코믹쇼. △'정출어람' 이라. 강의 후 더 멋진(?)대통령이 나올려나?! △그의 강의를 녹음하여 전국에 퍼뜨린다. 그러면 바로 그의 바보성이 입증된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정말이지 궁금하다. 한번 끝까지 들어보고 질의 질문을 통해 김영삼 자신이 얼마나 바보인지 깨달았으면...

△'미동풍'식 발원 이대로 좋은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원한다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면모를 보여 사회에 도움이 돼라! △학교 앞에 텐트 치고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런 사람이 오면 "을 학교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다." △신성한 교단에 역사적 죄인을 세우다니... 민족과 민중의 번영을 위해 그런 인물은 단호히 처단해야 합니다. △반드시 찬성한다. 김영삼이 오면 휴강이다. △연일 만원사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뻔뻔해질 수 있는지 보고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무슨 과목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반 이상이 반대한다면 그쪽을 따르겠다.



동악광장

목 먹기

축하합니다

△정훈아 생일 축하한다... 짜식 니가 벌써 20살이됐구나 △성진아, 축하한다.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나와 같이 전공결정을 한 우리 dgupress 식구들 축하한다. △남대인의 밤을 개최하게 된걸 축하합니다. △승욱아 핸드폰 산거 축하한다 앞으로 신세좀 지자 △입! 영어회화 섭 1등 추가!!! 다이얼로그도 잘해보자 △포치형, 전자과 간거 축하해요! △육경!~ 늦었지만 생일(27일)축하해, 잘 살아야 한다! △태훈이 형! 제대하신거 축하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

△인화야 정말 고생했다. 너 너무 기특한 거 알지?

△화공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밤샘도 많이하구... 막조정!! 막조 내년도 또해요!! △탈 공연 수고하셨습니다. 환상적이었어요 △사회학과 여러분 피켓팅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학 여러분, 일년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성, 일주일 동안 희곡의 이해 발표수업 준비하느라 수고했다. △정수아, 힘쓰느라 수고 많았다. 앞으로 계속 너의 힘을 보여주거라. △바보 경백이형, 섬보느라 고생 많았죠. 진하게 한잔합시다.

열심히합니다

△올해 수능보는 친구들이 감기 조심하고 조금만 더 힘내! 파이팅!! △현수아, 남은 섬뜩 공부 열심히 하거라. △연국인, 진정한 연극의 길을 위해 더욱 정진하여라. △사범대 여러분 내년도 열심히 합시다. △애쁜 헤리아! 얼마 안남은 수능 준비 잘하고 감기조심해라. 그리고...

△그대를 그렇게 그리는데 그대는 너무

냉담하군요 △4인방이여! 남은 섬 잘 마무리해 3.0을 이룩하자 △정치학개론 2-4조 여러분 이번엔 못가서 죄송 - : 답변엔 꼭 참석해요 -조원 △태희야 내 컴퓨터 책 빨랑 가져와라 나도 공부란 걸 할 줄 알아 △사회과학부 모두가 함께 하는 즐거운 축제 되었으면... △삼, 나중에 식사나 같이 하죠 △똥이형, 한잔해요. 이번엔 진짜예요. △노화연대실천단 여러분, 노동자 선언 잘 읽었습니다. △동현아, 답에도 버스에서 만나자. △정철이형, 그때 몰래 간거 죄송해요. 대신 안 그럴게요. △영호 오빠, 답부터 절대 늦지 않을게요.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상근 계장님, 도움 많이 주신거 감사합니다. △수학과 나의 친구들(문숙, 선미, 상희, 현주, 한아 등), 너희들을 배신하고 다른 과로 가버려 미안해!! △민희랑 지연아! 희~ 우리 친하게 지내자!! △재영~ 아푸른 안돼 ~ 임~~ △북한학과 연합 MT 잘 다녀오시구여... 저도 가고 싶어요잉~ △날씨가 너무 쌀쌀했어요... 예들이 감기 조심해!!

온방기

축하합니다

△Newsweek 의 공개발표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 주시고요. △불교문화대 학생회장 조태영 학우의 서울대 대학원 합격 축하합니다. △본교 경주 병원 총무팀 조희군 동문의 등단을 축하합니다. △친구야 며칠 전 새로 폰을 장만 한 거 정말로 축하한다. 우리들은 니가 폰을 해서 얼마나 기쁘지 몰라. 잃어 버릴 절대 안돼 알았지? △섬 끝났다.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불동과 여러분~ △K.K.S.L 친구들이 시험 친다고 고생 많았지? 수고했어~ 앞으로 수업도 더 착실하게 듣고 놀때도 확실하게 놀자. △'동음' 식구들 연습한다구 수고 많습시다. 하지만 이렇게 연습하는 게 콘서트 때까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생각하며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섬 끝났다.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불동과 여러분~ △K.K.S.L 친구들이 시험 친다고 고생 많았지? 수고했어~ 앞으로 수업도 더 착실하게 듣고 놀때도 확실하게 놀자. △'동음' 식구들 연습한다구 수고 많습시다. 하지만 이렇게 연습하는 게 콘서트 때까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생각하며 열심히

오늘의 글

서명희 (불문대 국악3)

전국탄금 가야금 경연대회 대상, 전국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금상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다 준 가야금

"수상이라는 열매로 정상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어요"라며 수상소감을 말하는 서명희(국악3)양은 겉으로 보이는 당찬 모습과는 달리 겸손한 말에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 3년간 가야금에 대한 열정을 아끼지 않았던 서양은 지난 9월 28일 '제24회 전국탄금가야금 경연대회'에 처음 출전하여 가야금 독주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지난 6일에는 '제9회 전국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기악부문 금상까지 수상했다. 이처럼 단 두 번의 대회출전에서 모두 큰상을 수상할 만큼 상당한 실력자임에도 자만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지속적인 관심과 질책으로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께 공을 돌렸다. 그러나 대상에 빛나는 아름다운 선율을 내기까지 쉽지 않았던 과정을

털어놓았다. 우연한 기회에 가야금을 처음 접하게된 고등학교시절, 가야금의 깊은 맛에 매료되어 국악과 진학을 결심했지만 어려운 집안형편으로 졸업과 동시에 잊고 살아야 했다. 그래도 가야금에 대한 미련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고 3년 후 본교 국악과에 입학하게 됐다. 서양은 "간절히 원하던 가야금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기쁨에 퐁당 나뉘는 연습을 했다"며 세상무엇도 부러워 하지 않았다. 늦게 시작한 만큼 각오도 남달랐던 서양이지만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가야금 소리는 슬럼프로 빠져들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자책은 얼마가지 않아 스스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 대회연습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었다. 이런 과정 끝에 결국 첫 대회 대상이라는 노력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서양.



"우물 안 개구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해준 계기였다"며 치열한 경쟁에서 얻은 교훈을 되뇌었다. 또한 앞으로 있을 대회는 완전한 자신감이 생긴 후 나갈 것이라는 조심스런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양의 가장 큰 소망은 졸업 후 국악연주단체에 들어가 좋아하는 가야금 연주를 하며 대학원을 다니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서양의 가야금 연주가 갖은 고초 끝에 얻는 명칭의 득음처럼 울려 퍼질지 기대해본다.

김남정 기자 hanaby37@mail.dongguk.ac.kr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자세한 연구 내용 소개요망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술면하면 어렵고 딱딱한 내용으로 뻑뻑하게 기사만 실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나호 동대신문에서 나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던 것은 학술면에 있는 '연구현장을 찾아서'라는 기사였다. 본교의 한 교수님이 RNA 효소인 리보자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특히, 이번 기사는 내가 듣고 있는 강의를 직접 진행하시는 교수님이 연구를 하신다는 내용이라서 더욱 흥미롭게 읽은 것으로 기억된다. 본교 교수님들의 연구 현황을 다룬 이번 기사는 어려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학술면에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구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단지 소개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류정렬 (자연과학부2)



(제1304호 10월 9일자)

생활면 다양한 정보 필요

생활면에는 학생들이 보면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들이 실려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그 예로 새로 나온 신간 서적 중 외국어나 컴퓨터에 관련된 베스트셀러 등을 소개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취업길라잡이라는 글이 있는데 지방대 취직률 등 학생들이 현실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많이 실어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앞으로 동대신문은 학생들에게 다른 매체보다 빠르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

신미혜 (관광경영학부2)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pc 통신 ID 하이텔 dgpress 나무누리 : 동대신문 천리안 : dgupress

전공결정의 문제점

전공결정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학부생활에서 벗어나는 설레임과 원하는 학과에 가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우리 학부는 두개의 학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과와 전기과. 전자과는 인기가 매우 높은 반면 전기과는 늘 정원 미달이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자과를 생각하고 전자전기공학부에 오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관성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들은 전자과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측에서도 정원의 150% 이상까지 지원자를 받아주고 있어서 정원이 넘어도 전자과를 갈 수 있다. 이례서 전기과는 늘 정원 미달이고 전자과는 넘쳐나는 인원으로 실형실 부족이나 정원 초과로 듣고 싶은 과목을 못 듣게 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다른 학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몇몇 비인기 학과는 언제나 정원 미달로 인해 학과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적성에 따라 그 학과에 지인한 학생들은 마치 성적이 낮아서 그 학과에 다니는 듯한 묘한 감정까지 느끼게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선택의 폭을 다양화한다는 말로 학부에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말은 잘 포장된 실현 불가능한 이상들이었다. 몇몇 비인기 학과를 존폐의 위기에 빠져들게 하고, 인기학과는 정원 초과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을 낳았다. 또한 정원 초과 문제는 성적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어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 또한 말도 안되는 해결책이다. 일본어를 전공하기 위해 1.2학년 일본어 공부를 해 왔는데 전공 결정 때 다른 과로 듣고 싶은 과목을 못 듣게 되는 것은 과를 가이만 한다면 그 사람의 2년을 누가 보상하는가. 누구를 위해 학교가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동훈 (전기전자공학부2)

도서관 열람실 작은 미덕

시험기간에 도서관 자리 맡아주는 행위 따위 때문에 실제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이에 두가지 대처방안을 제안한다. 우선은 학생 자문에 맞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자리맡아주기를 스스로 하지 않고 강의시간 내지는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경우엔 간단한 메모를 남겨 다

른 학생이 그 자리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지정좌석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도서관 입장시 1층, 4층 열람실을 이용할 경우 좌석표를 배부 받고 지정된 좌석에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다. 물론 다시 번호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좌석표 배부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긴 하지만 시험기간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 가능하면 학생들이 스스로가 매너를 지키고, 다른 학우들을 위해 작은 배려를 한다면 위의 방안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 작은 도서관, 좌석수가 너무나 적은 열람실이지만 작은 배려로 두 배로 넓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도환운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2)

자유에 따른 책임 필요 시기

이젠 밖으로 나가면 자연스레 '아저씨'란 호칭에 익숙해진 나이가 되어버렸다. 대학에 오려고 무던히 애를 쓰던 나이가 얼마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젠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기성세대가 되어 가는 중이다.

20살 이전에는 나의 나이가 그렇게 싫었다. 청소년이란 굴레에 썩어진 온갖 제약들, 그런 것들이 싫어서 어서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어서 나이가 들었으면 했다. 이제 어른 대열에 합류한 지금은 그때 마냥 동경해왔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어른만이 아닌 자유에 대한 책임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는 느끼지 못한 또 다른 더 크게 보이는 제약들을 알게 됐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윤리, 이제 대학생이 된 신입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지만 사람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성인으로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한마디 말, 하나의 행동,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자유라 불렀던 방중에 취해 있었던 신입생 시절이 너무나 그리워진다.

인덕근 (공과대 전기공학3)

변연희 (인문대1)

합시다. -김박.데.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동음.인

열심히합니다

△드레 T.G 모두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 친다고 고생 많았죠? 그래도 더 열심히 공부합시다. △은이아! 지금까지 시험친거 너무 신경 쓰지 말구 화을날 치는 전공시험 좋은 결과 있을 좋겠다. 레포트두 열췌미 하구... △성호, 기영이 형 항상 아껴주시는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고 열심히 만드세요. △영리, 마누라(파식) 섬 끝났다고 집에서 술 사들고 기다리는데... 집에 안 갈게여 유~ △야들아! 이번 졸업보고서 학~시리 끝내서 좋은데 취직이나 하자. △체육관은 사회체육학과 학생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체육관을 타 학생들을 위해서도 개방합시다. △정희아! 이제서야 말하지만 너를 만나 정말 정말 기쁘단다. 우리의 약속들 잘 지키고 우리 우정도 영원했음 좋겠어. △관광대 여러분!11월 호텔투어 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름이 (인문대1)

알립니다

△11월 1일~5일 까지 민족국사학과 학술제 및 체육대회 '뷰터'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경대 민중노래대 '강철사랑' 이 드디어 11월 3일(금) 소강당에서 정기공연을 합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중입니다. 많이들 찾아주세요. △영리더에서 신입 회원(00학번)을 모집합니다. 단순하지만 강한 저의 동아리로 오십시오. △관광대 여러분!11월 호텔투어 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름이 (인문대1)

그리고...

△4학년입니다. 종정의 단풍도 이제는 마지막 일 것 같습니다. 종정의 가을 오래오래 기억해 두고 싶습니다. △20명중 17등도 중문과 갈 수 있어. Y.J 파이팅! 3학년부터 잘하면 된다. △일렬아 사랑해 △사랑하는 형석아! 100일 동안 기다려어... 앞으로도 영원히 널 사랑해. 아이 리뷰 유~! △여보, 마누라(파식) 섬 끝났다고 집에서 술 사들고 기다리는데... 집에 안 갈게여 유~ △야들아! 이번 졸업보고서 학~시리 끝내서 좋은데 취직이나 하자. △체육관은 사회체육학과 학생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체육관을 타 학생들을 위해서도 개방합시다. △정희아! 이제서야 말하지만 너를 만나 정말 정말 기쁘단다. 우리의 약속들 잘 지키고 우리 우정도 영원했음 좋겠어. △관광대 여러분!11월 호텔투어 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름이 (인문대1)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합시다

의대생 의약분업 투쟁에 대해

찬성

약사법 개정·국고 지원문제는 국민건강을 위한 근본 조건으로 국가정책 수립필요하다.

수업을 거부한 지도 두 달째. 이런 언론을 통해서 의대생의 유급을 우려하는 뉴스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우리의 주장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잘못된 약사법 개정, 지역료보험 재정 50% 국고 지원이다. 그러나 1년 가까이 투쟁을 해왔는데도 약사법은 아직 제대로 합의될 본 게 없다.

지역료보험 재정 50% 국고 지원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분명 정당한 요구이지만 정부는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서 40%까지 지원하겠다는 게 전이다.

그것도 2005년 전에 정부가 바뀌니 그 약속이 어떻게 될 지 알 수도 없다.

이제 우리 의과대 학생들은 유급의 기로에 서 있다.

전공의는 이미 유급을 결의했으며 학생도 곧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를 떠나서라도 유급까지 진지

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만큼 급박한 현실이 우리앞에 다가온 것이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을 수는 없으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천천히 준비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은 지금 바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국고 지원 문제는 장기적인 의료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로서 지금 당장 실시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천천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분명 있겠지만 위의 두 가지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근본적이고 필요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의대생은 의료제도의 주체로서 지금과 같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바이다.

최민석 (의과대 3분3)

반대

잘못된 의약분업의 실행으로 많은 파란이 야기되었다.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했으며 전국의 전공의대생들은 단결하여 집회와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현실에서의 의대생들은 유급까지 당할 상태에 놓여 있지만 그들의 뜻을 굽히고 있지 않다. 그들이 요구하는 약사법 재개정과, 의료보험재정 국가 지원 50% 등의 요구를 정부측에서 받아 들일 때까지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진료권이 침범할 수 없는 의사의 권리라면 약제조 또한 침범할 수 없는 권리인 것이다. 의약분업이 실행되기 전 약사가 병세를 처방하고 약을 지어 주었을 때 의사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약사가 약을 짓는데 대하여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를 이유삼아 반대하

잘못된 국가정책 반대보다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의사모습 갖춰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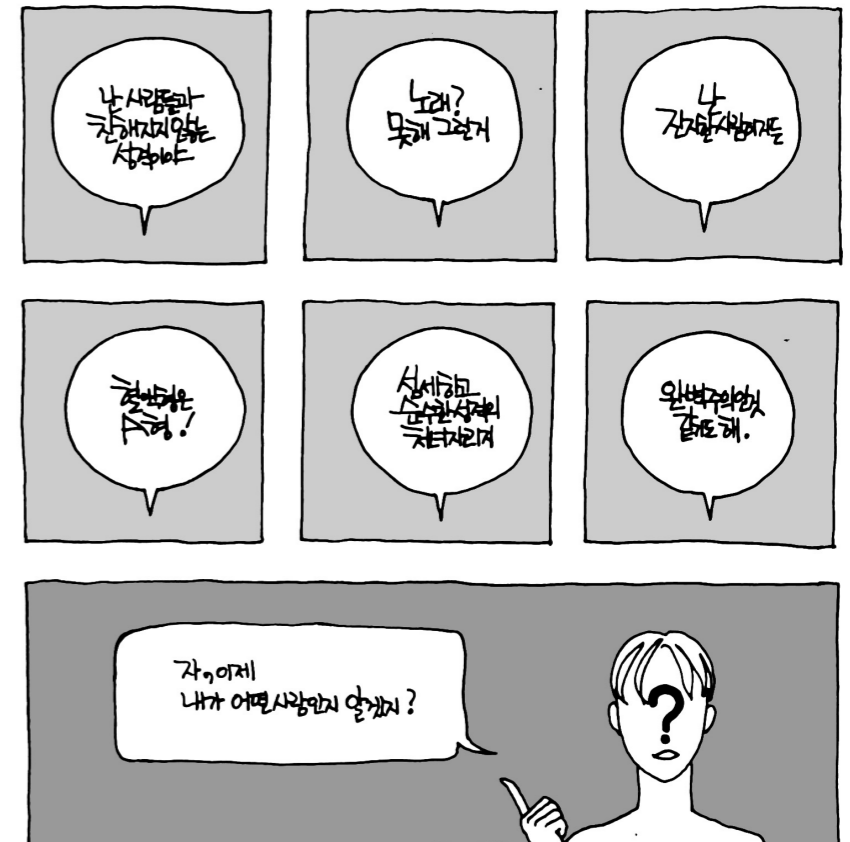
는 것은 웬지 모순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된다. 의사들 또한 약물남용 및 대체조제를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좋은 약만 제공하였는지 말이다.

그리고 의료보험재정 50% 국가 지원도 우선 병원들이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서를 먼저 국가에 반납하고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잘못된 국가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투쟁을 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먼저 의사들은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르게 사건을 풀어나갈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진정 그들이 국민들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투쟁한다면 그들의 투쟁에 국민들은 동참할 것이다.

정해밀 (국문3)



열린글터

◆ 특별기고 - 사회학과 K교수 성희롱 사건 해결을 지켜보며

잘못된 성적관행 바로잡은 '아픈' 배움

'물타기' '외곽때리기'로 흐려진 본질... 처벌 규정 시급



K교수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집회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생들.

아직 공식적인 징계결과가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성희롱 사건의 당사자인 K교수에 대해 사실상 해임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일단 학교와 재단측의 어려운 결정에는 조심스럽게 신뢰와 지지를 보내지만, 가슴 한켠에 드는 착잡한 마음은 감출 길이 없다. 이번 징계결정이 앞으로 한국의 대학사

회에 만연해있는 잘못된 성적 관행과 그것을 온존시키는 구조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행스러운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때나마 우리의 스승이었던 분에 대한 이전의 신뢰를 생각고는 생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이 한 개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탄핵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른 곳에서 언급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 지면에서는 이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지적해보고자 한다.

우선,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물타기'와 '외곽때리기' 담론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흐리고 피해자를 매도·비방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를 시도하는 잘못된 성관행이 팽배해있다는 사실이다.

본 사건의 본질은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소유한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피해여성에게 성희롱이라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여성의 평소 행실이나 과거 행적을 문제삼아 피해여성을 매도하고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도덕적, 질차적으로 정당한 문제제기를 두고 동료교수의 '선동'이니, '모함'이니 판지를 거는 '음모론(?)'적 주장 앞에서는 착잡한 마음마저 들게 된다.

마치 우리 정치의 악습이 그대로 대학사회에 재현된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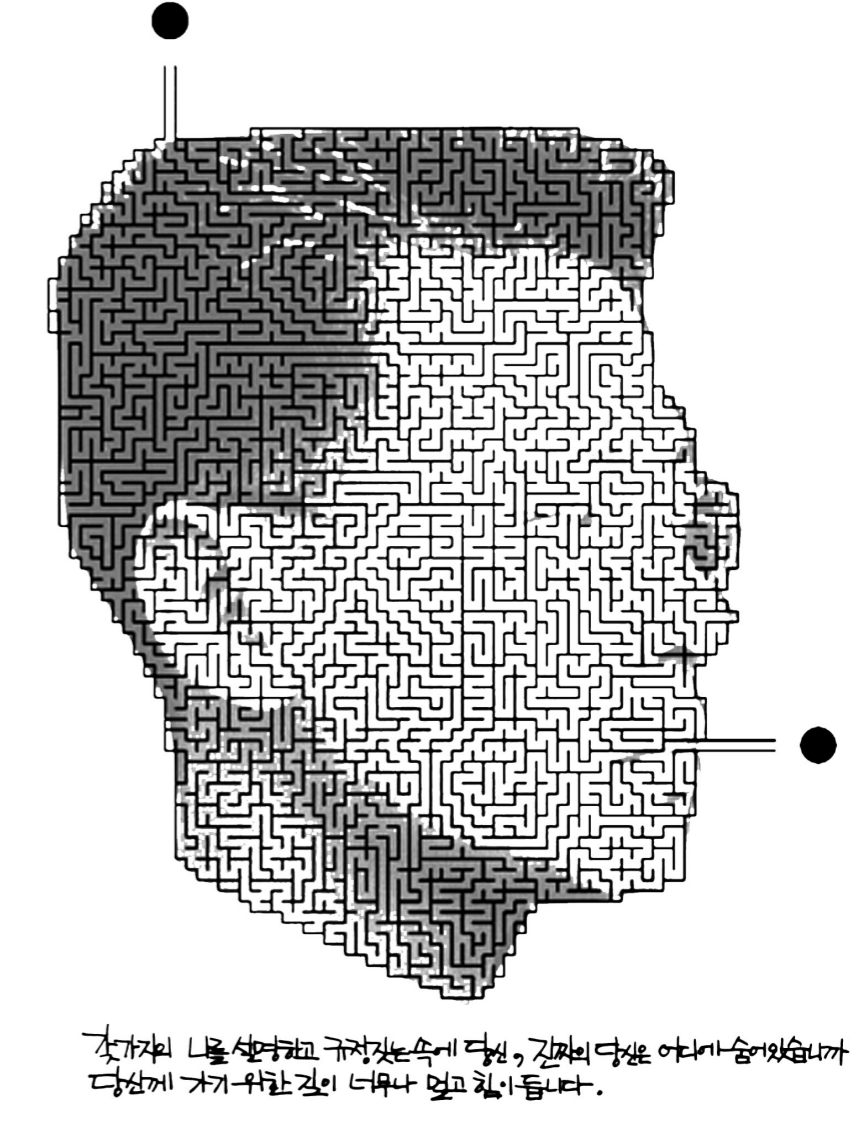
또한 명백히 해당 교수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징계에 절차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교수의 사회적 지위는 투명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마치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과 원칙적으로 같은 이치라 할 수 있다. 다만, 높은 배움을 실현하는 전당인 대학에서 성희롱과 같은 부도덕한 행위가 저질러졌을 때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성적 관행에 대한 개선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이를 온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성폭력 특별학칙 제정과 같은 처벌규정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사건의 해결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은 또 다른 배움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현재의 잘못된 구조와 관행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또 하나의 배움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너무 아픈 배움의 과정임에는 틀림없다.

심병찬 (사과대 사회4·사회학과 비상대책위원회장)



복수전공 결정

2000학년도 2학년 2학기 재학생의 전공 및 복수전공 결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서울캠 : 2000. 11. 6(월) ~ 11. 8(수) / 경주캠 : 2000. 10 30(월) ~ 11. 1(수)
 - 접수처: 학생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단, 야간학생은 야간강좌 교과처)

나. 결정 및 확정공고

서울캠 : 2000. 11. 17(금) / 경주캠 : 2000. 11. 10(금)

교무처

복수전공 이수신청원 작성시 유의사항

- 복수전공시행 기본방안
- 선발인원: 1) 기준정원 100%이내에서 결정되되, 시설여건·교수확보 등의 사정으로 인원이 제한될 수도 있다. * '99학년도와 전공별 정원이 기준이 된다. 2) 최대 배정비율인 100%에는 편입생과 정원의 입학생이 모두 포함된다.

- 신청자격: 2000년 2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서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자
- 대상학과: 계열제한없이 전학과, 전공 * 단, 제한사항 있음.
- 제한사항: 1) 한의학과, 의과과로의 복수전공 불허 2) 캠퍼스간 교차 복수전공 불허 3) 교과과정 이수허가자를 제외한 비사범계열 학생의 사범대학내 학과로의 복수전공 신청 불허 4) 예,체능계 학과(전공) 지원시 해당학과(전공)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 법학과 및 경찰행정학과 복수전공 희망자는 신청원 작성전에 반드시 해당학과에 교과이수 및 졸업후 진로등에 관하여 문의할 것.

수용정원 초과시 선발원칙

- 대상 전공: 복수전공 이수 신청자가 해당전공 배정 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 즉 '99학년도 전공별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100%를 초과신청한 학과 및 전공이 대상이 된다.
- 순위 선정 방식: 1) 배정인원 이내로 지원자가 있는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전체를 선발한다. 2) 지원자가 100%를 초과하는 전공은 이수학기에 관계없이 본교에서의 취득 성적(F포함) 평점평균을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비교하여 선발한다. 3) 동점인 경우 동순위 처리한다.

구제도 부전공 신청자의 복수전공

- 구제도에하에서 부전공을 신청하여 이수 중인 자(95학번 까지)가 금학기에 복수전공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 교과과정 이수체계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 따라서 부전공 이수중인 자가 복수전공을 허가받게 되는 경우 부전공 이수는 당연히 자격 상실

졸업 및 논문

- 제 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복수전공의 이수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복수전공의 계속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2개학기에 한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다. 단, 마지막 학기까지 복수전공 기준학점의 1/2이상 취득한 자만 연기신청이 가능하다.
- 제 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학위수여는 할 수 없다.
- 복수전공을 이수한자는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관련사항을 표시하고 복수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 복수전공의 졸업논문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에 위임한다.
- 제 1전공에 대한 졸업요건을 갖추고 복수전공 중도포기후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복수전공 이수시 2학점 이상 취득하였다면 부전공으로 자동 전환하여 인정한다.

신청 절차

- 개인별로 학업지도교수 및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의 소속교수와 면담을 통하여 복수전공 신청여부를 결정한다.
- 복수전공 이수신청을 결정한 후 소속대학 교과과에서 복수전공 신청원(OMR카드)을 교부 받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정확히 작성한다.
- 작성이 완료된 신청원은 해당단에 개인별로 소속 학부(계열) 학업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본인의 소속대학 교과과에 접수한다.
- 일단 접수된 신청카드를 원칙상 정정이 불가하기에 본인이 직접 접수된 최종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타

- 복수전공 이수허가 후 2학기 이상 이수하였으나 변경(포기)을 희망할 경우 소속대학 교과과에 복수전공 포기(변경) 신청을 할 수있다. 다만 복수전공 변경신청시 해당 복수전공 허용인원 잔여수에 한하여 허가한다.
- 확정공고후 금학기까지 개인별로 이수한 교과목중 복수전공이 허가된 제2, 3전공과 일치하는 전공교과목은 '복수1', '복수2' 로 이수구분이 자동변경된다.
- 편입학생, 체육특기자, 정원의 입학생(농어촌, 외국인, 교포 및 외교관자녀 등)의 경우에도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이상의 원칙을 적용한다.
- 사범대생 및 비사범대생중 교과과정 이수허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적복수전공도 이번 학위복수 전공.

해외 자매대학 교환유학생 파견 제도

1. 해당대학 및 선발시기

국기명	대학명	선발시기	지원자격	파견기간
미 국	미시간주립대	매년 3월 중	학부 5학기 재학생	9월~8월 (1년)
일 본	대정대	매년 3월중	석·박사과정 및 학부 5학기 재학생	9월~8월 (1년)
	용곡대	매년 9월중	석·박사과정 및 학부	3월~2월 (1년)
	불교대	구택대	4학기 재학생	
	사포로학원대			
중 국	북경대	매년 9월중	학부 4학기 재학생	3월~2월 (1년)
	청화대			
	남경대			
대 만	중국문화대			

* 지원자격 공통사항 : 학부과정 평균평점 3.0 이상이며,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2. 선발방식

- 가. 기준 : 학부과정 성적평가(25%) + 면접평가(50%) + 외국어능력시험 인증서 평가 (25%, 가산점)
- 나.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언어권별 외국어능력시험 인증 등급은 아래와 같음.
- 영 어 권 : TOEFL 550점 이상 * 가산점이 아닌 필수자격조건
 - 일 본 어 권 : 일본어능력시험 JLPT 2급 또는 JPT 600점 이상
 - 중 국 어 권 : 한어수평고시 HSK 6급(중등 C급) 이상

3. 문의처 : 연구처 국제교류실 (☎ 02-2260-3876)

연구처

세대간 문화고리 걸기



백지현기자

제1회 거리문화제 공연의 한 장면.

“아이고, 저게 무슨 짓이야? 저것도 노래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거친 춤동작과 빠른 랩을 흥얼거리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기성세대들의 시선이 딱딱하다. 새로운 젊은 문화와 기성세대 문화가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경주캠 동아리 연합회는 이 두 문화의 괴리를 극복해 보려는 새로운 ‘창조’를 모색하고 있다. 바로 두 번째 거리 문화제를 기획하고, 대학 문화와 기성 문화를 연결해 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세대와 나이를 뛰어넘어 경주시민과 하나되는 자리는 오는 4일 오후 4시부터 전통 풍물패 ‘불휘’의 신명난 공연을 시작으로 펼쳐진다.

여기서 힙합 댄스를 선보이는 ‘유로스’의 무대에 이어 △한울회 △슬메리아 △세븐 글라스 △신라 택견회가 접하는 메시지는 세대간의 공감을 통해 새로운 문화 창조를 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디밴드 아프리카와 블랙신드롬 공연이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경주캠 동연 거리문화제 대학문화 위기극복 제안

그러나 이 시간이 대학문화와 지역문화를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성장동에서 가진 첫 번째 문화제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행사가 하드웨어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하드웨어 속에 소프트웨어를 채워 넣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리 문화제는 기성세대의 관심을 바탕으로 대학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행사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거리 문화제를 기획한 안윤광(경영3)군은 “대학 문화가 흔들리고 비틀대는 모습으로만 묘사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거리 문화제를 통해 순수 대학 문화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지금까지 대학 문화는 ‘위기’라는 꼬리표를 달아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학 문화에 ‘시망선고’를 내리기도 하고, 대학 문화는 ‘없다’고 까지 말한다. 그리고 더 이상 대학문화가 대중문화의 소비자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힘’이 필요한 것이다. 그 힘은 거리 문화제와 같은 참신한 기획으로부터 키워 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말 저녁, 젊음과 지역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펼쳐지는 문화 한마당에 희망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대학 문화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함께 출발하는 삶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많은 부분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얼굴모양과 같은 외형적인 것은 물론 이거나 성격과 같은 심리적 요인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물며 남성, 여성이란 성의 구분이 어찌 나의 선택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작년에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77.8%가 대학 내에 성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45.2%는 대학생활을 통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진리를 추구하고 평등을 부르짖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성차별과 성폭력, 성희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대학 내 성폭력과 성희롱 개선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으며, 성희롱 금지 조항을 학칙에 명문화하면서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아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제정을 통한 규제가 왜곡된 성문화를 어느 정도나 바로잡을 수 있을까? 성폭력이나 성희롱은 그에 대한 개념 규정이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또는 장소나 상황에 따라 인지하는 정도가 다르다.

또한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가 엄밀한 의미에서 ‘피해규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 심각성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성희롱을 규제하기 위한 ‘남녀차별 금지’와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을 예방, 규제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성차별과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삶의 출발을 균등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출발에서부터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남녀간의 불균등한 권력 관계의 개선은 어려워지고 더 나아가 성에 있어서도 균등성을 찾을 수 없게 된다.

늦은 저녁 성전동에 나가게 되면 대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런 모임에서 젊은이들의 고뇌에 찬 이야기와 노래가, 때로는 즐거움과 슬픔이, 그리고 기쁨과 아픔이 오고 가는 것을 엿보게 된다. 아! 젊음이란 얼마나 눈부신 것인가.

그렇지만 지금 인간과 인간이 아닌 남성과 여성으로 존재하는 대학사회의 어두운 부분은 안타까움만 안겨주고 있다.



박명숙
지연대
가정교육과 교수

인권의 눈으로, 영화의 손짓으로

무관심·편견 속 기본권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 제시



장애인, 성적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평등한 인권을 존중받고 그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자리, 인권영화제.

영상을 빌어 억압받는 비주류를 이야기하는 인권영화제가 지난 27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다섯 돌을 맞았다. 96년 처음 생긴 이래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사건의 제도를 비판·거부해 온 인권영화제가 최근 커밍아웃으로 동성애자 인권 문제를 표면 위로 떠오르게 한 홍석천씨의 사회로 그 막을 열게 되었다.

이번 개막식은 올 한해 인권사건을 모은 ‘2000 인권뉴스’를, 체 게바라의 불리비아 전투 때 활동을 담은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불리비아 일기’를 상영하면서 다음달 1일까지 6일간의 행사 일정을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29일 92년 미국 오리건주에서 있었던 반동성애법안의 치열한 찬·반투쟁을 다룬 ‘제9법안 찬반투표’의 상영 후,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 토론을 통해 참여자는 물론 일반 관객들까지

지 인권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들을 편견 속에 가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올 인권영화제에서는 총 29편의 인권영화를 무료 상영하며, 인권영화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제정된 ‘올해의 인권영화상’도 수상할 예정이다.

1회부터 줄곧 인권영화제를 주최해 온 인권운동사랑방은 영화제를 통해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을 올바르게 확립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홍보·조직 담당)씨는 “보편적인 인권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 인권영화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영화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이 바로 인권운동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인권영화제는 거창한 타이틀을 내세운 행사라 아니다. 낯의 일이라고 접어두기 쉬운 인권문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허물없이 함께 이야기하는 인권의 장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영화제는 억압받는 소수를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인권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인권교육의 또 다른 산실인 셈이다. 이것이 인권영화제가 무수한 탄압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유이고, 앞으로도 그 존재를 지탱할 힘일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10월 30일(월)	4월 9일 5시
31일(화)	데모크라시 예대동 5시 보이지않는 전쟁 7시 30분
11월 1일(수)	폐막식 7시 50분
장 소	이화여대 법정대 강당에서

도서정가제, 어떻게 될 것인가

출판유통업계 비합리 관행부터 개선해야

서점에서 안났다. 이제 인터넷으로 책을 산다. 요즘은 좀처럼 실현될 것 같지 않던 사이버 윌드가 실감난다. 책부터 작은 소품까지도 집안에서 클릭 한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프라인에서 깎아달라 조르는 것도 인터넷상에서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마케팅 전략이 ‘할인판매’이기 때문이다. 꼼꼼히만 둘러본다면 오프라인보다 질 좋고 값싼 물건을 살 수 있다. 세상 좋아졌다 말이지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다른 전자상거래보다 도서분야의 거래는 팔목할 만하다. 인터넷 서점은 인터넷 기업으로서 최선방에 서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프라인의 서점에서 얻을 수 없는 도서정보와 관련 데이터베이스, 10%에서 절반까지 이르는 할인율, 그리고 배달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 서점들의 활발한 활동 때문에 중소서점의 붕괴와 출판계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낙후된 유통구조를 미처 개선하지 못한 출판계와 서비스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서점들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99년부터 ‘도서정가제’를 입법화해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적절한 정가 책정과 정가판매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99년의 도서정가제는 네티즌의 반발과 법안의 문제점 때문에 자진철회되었다. 그리고 최근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입법예고되었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주된 내용은 도서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으로 인터넷 서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yes24를 비롯한 인터넷 서점들은 네티즌들에 의한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출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 서점 yes24.

판업계 서점의 위기는 인터넷 서점의 영향이 아니다. 미국 대형 서점 반즈 앤 노블의 경우 오히려 아마존과 경쟁력을 가지면서 발전하고 있다”며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70.3%, 인터넷 서점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97.1%의 네티즌이 입법화에 반대하고 있다.

오프라인 서점들의 도산과 출판사의 위기로 인한 도서의 질 하락 등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로부터 기인된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은 후불과 반품, 어음으로 접철된 출판유통업계의 변화와 인터넷 서점의 잠재력을 전제하지 않은 성급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물론 정당한 가격에 거래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당한 가격이 어떤 과정에서 결정되는지를 간과한 다수에 의한 비합리적인 유통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은 지난달 29일로 입법예고가 끝나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문화관광부와 신임장관의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최은진 기자
funny@dongguk.edu

매체비평

TV 드라마 편

'아줌마'

"여기 세상의 이중성을 폭로하며 날카로운 비판의 칼을 든 아줌마가 있다"



MBC TV 드라마 '아줌마'의 한 장면. 아줌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몇몇 신문 미디어 비평란에는 '아줌마'가 경쟁사

편찬위원

의 '가을동화'에 비해 시청률에서 뒤진다는 소식을 내놓으며, 이에 따라 '아줌마'에 대한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이런 분석은 자칫 드라마 '아줌마'가 갖고 있는 장점마저도 소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아줌마'가 '가을동화'에 비해 시청률이 떨어지는 이유로, 이 드라마가 아줌마들을 지나치게 회화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드라마 '아줌마'는 코믹 휴드라마를 표방하고 있어 등장인물들이 다소 웃기게 그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주인공 오삼숙(원미경 분)은 현실보다 더 답답한 아줌마로 비춰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평범한 아줌마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에 일견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요즘 아줌마들이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과거에 비해 지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의 약자집단에 속해 있다는 기본 전제를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는 가부장제의 전통이 곳곳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다. 똑똑하건 바보 같건 결혼을 해서 일단 아줌마라는 지위를 갖게된 여성들은 가부장제 하에서 시부모와 남편을 '섬겨야 하는'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가부장제를 거부했을 때 여성들이 당하는 사회적 비판을 생각한다면, 오삼숙이라는 인물이 다소 과장된 것은 사실이

나 공감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다. 오히려 이 드라마의 미덕은 아줌마 오삼숙을 둘러싸고 있는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지식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말로는 온갖 진보를 떠들면서 현실에서는 삼숙의 무식함을 비웃고 업신여기는 지식인 남편 장진구(강석우 분)와 그의 친구들. 같은 여성이지만 삼숙과는 풍자가 다르다는 우월감을 갖고, 삼숙의 희생을 대가로 자신들의 사회참여와 직업생활을 하는 시누이(변소정 분)와 시어머니(정재순 분) 역시 이중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이런 점에서 '아줌마'는 우리 사회 지식인들의 이

중성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다. 아줌마 삼숙과 연대해주는 똑똑한 아줌마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줌마'가 더 좋은 드라마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견전한 아줌마들을 집안에서 숨죽이게 했던 지식인들의 이중성과 가부장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폭로해야 한다. 더불어 아줌마들 스스로에게도 날카로운 비판의 칼을 들이밀어 주길 바란다. 그렇게 우리 사회의 이중성을 깨닫다면 앞으로 더 다양한 공간에서 자신들의 생활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아줌마들을 TV를 통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간사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 느낌 속 여유에 젖다

인사동 학교 ... 사회변화에도 전통문화 지키려는 움직임

흔히 인사동이라 하면 관음동, 견지동, 낙원동, 공평동, 경운동 일대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인사동이라는 지명은 현재 종로 YMCA 건물 뒤쪽 지역에 제한된 동네 이름이다. 그러나 이 인사동이라는 명칭도 조선시대에는 없던 지명이었다. 일제시대 초기에 편의상 행정구역을 나누면서 관인방(寬仁坊)의 대사동(大寺洞), 원동(圓洞)의 일부와 이문동(梨門洞), 향정동(香井洞), 수전동(水典洞), 승동(承洞)의 일부를 합치면서 인사동이라는 지명이 생겨나게 되었다. 곧 관인방의 인(仁)자와 대사동의 사(寺)자를 따서 동명을 짓게 되었던 것이다.

일제시대 속에서의 변천

원래 인사동 일대는 조선시대 말기까지 큰 대가집이 많이 들어서 있던 곳이다. 박영호 대감택이 지금의 경인미술관 자리에 있었고 서울시 민속자료 제15호로 지정된 개량 한옥 민익두가(家)가 바로 그 자취들이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들어서면서 정치세력의 변화로 인해 터가 넓은 대가집들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자 집장사 손에 넘어가게 된다. 이들은 이 대가집 터를 분할해 작은 한옥을 지어 분양

하는데 이 때문에 인사동에 작은 한옥들이 빼곡히 들어서게 된다.

인사동 골목길의 매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동은 전통문화가 남아 있는 거리로 오랫동안 각광을 받아왔다. 그것은 인사동이 도시계획에 의해 비독판식으로 이룩된 동네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주위환경을 따라 건물들이 지어졌기 때문이다. 곧 안국동에서 인사동 네거리로 거쳐 종로에 이르는 길은 원래 개천이었고 이 개천을 중심으로 이쪽 저쪽에 자연환경을 따라 집들이 들어섰던 것이다. 이 개천이 북개되어 도로가 되면서 도로 자체도 개천의 흐름대로 굽어지게 되었는데 이처럼 자연스레 굽은 도로, 어깨를 맞댄 낮은 기와집들, 이리저리 막힐 듯이 이어진 골목길들이 우리의 전통 동네 양상을 유지시켜 왔던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일제시대부터 고서점, 골동품점, 표구사들이 속속 도로변에 들어서고 시대가 흐르면서 화랑, 전통차점, 공예점, 다도구점들이 합쳐지면서 인사동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고 느끼고 맛볼 수 있는 거리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8·15광복과 6·25동란 이후

많은 외국인들이 인사동에 드나들면서 서울에서 가장 한국적인 거리로 인정받게 되었다.

인사동의 개발 바람

그러나 90년대 이후 인사동은 개발 바람에 휩싸이게 된다. 인사동 축제로 인해 수많은 인파가 인사동에 몰려들게 되자 건물 신축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친 것이다. 서울의 허파 구실을 하던 낮은 집들이 헐리고 하늘을 볼 수 없는 콘크리트 빌딩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인사동은 전통적 매력을 잃어가게 된다. 곧 건물신축에 따른 임대료 인상과 대형 점포화는 인사동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8백여개의 작은 점포들을 그 경영조차 유지할 수 없는 바람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시민들의 자각운동

1999년 11월에 인사동 중심부 도로변에 위치한 4백여 평의 대지가 한 건축업자에게 팔리게 되자 인사동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 아래 자발적 시민운동이 일어난다. '작은 가게 살리기'라는 구호로써 서명운동이 적극적 지지와 문화·예술·학계 인사들이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

하자 서울시는 2년간 신축허가 불허, 2년 후에도 4층 이하, 심의위원회 통과라는 조항을 달아 공표하기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동은 내부적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기와지붕은 그대로 놔둔 채 내부를 뽕뽕 들어낸 후 현대적 시설을 하는가 하면 대수선 공사를 통해 점차 여느 거리와 별 차가 없는 모습으로 치닫고 있다.

급변하는 인사동

점포들도 변하고 있다. 유명 골동품점도 이미 그 유지가 힘들어 대로변에 싸구려 중국물건이나 값싼 공예품을 파는 좌판을 벌리고 있고 전통업소들은 점차 인사동에서 자취를 감추는 추세에 있다. 퓨전음식점, 햄버거점, 외국음식점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이제 이 거리가 그 전통의 인사동인지 가늠할 수 없게 되었다. 인사동에 몰따고 있는 업주들이나 행정당국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깊이 있게 인사동을 해부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인사동을 잃는 것은 전통문화를 잃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향기를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승대 도시연대 북촌문화센터 소장

인사동 탐방수업 동행기

검정색 점포 벽돌이 깔린 약 7백미터 길, 물화(물화분)과 물방울(물벤치)이 선사하는 여유. 지난 12일, 인사동은 1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사람들 앞에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뿌연 먼지가 날리고 불법주차 차량으로 길을 오가기 힘들었던 인사동에서 전통의 색채를 보듬어 안은 인사동이 된 것이다. 이처럼 인사동 거리의 겉모습은 계속 덧칠을 하며 변해가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바로 인사동의 옛 모습과 전통을 이어나가는 고서점, 다도구점들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눈에여겨볼 곳은 '월인천강지곡', '독립신문' 등을 발굴·복원한 산기(山氣) 이경로 응이 1934년 인사동에



서 처음으로 연 고서점 '통문관'이다. 이곳에 가면 고서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 인사동 거리의 변천사까지 들을 수 있다.

'다임'의 경우도 1981년 들어선 이후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도구점이다. 80년 초반만 해도 다도구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다임'을 연 안정애 여사가 차에 대한 애정과 개척정신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면서 인사동에 차문화가 뿌리를 내리는데 실질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동은 많은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 속에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리고 또한번의 거듭나기를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 수 있었다. 그러나 인사동의 변화에 발맞춰 인사동을 오고가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인사동의 변화는 단지 외관상의 변화일 뿐이다. 이 가을, 우리 모두 전통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진 인사동거리를 찾아보면 어떨까.

문화부 fresh@dongguk.edu

인터뷰 - '2000 인사동 학교' 수료생을 만나

도시연대 북촌문화센터가 주최하고 국정홍보처의 후원 아래 '인사동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열린 '2000 인사동 학교' 4기 수료생 최세미나(국문3)를 만나 인사동 학교의 이모저모를 들어보았다.

- 인사동 학교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신청했지만, 우리 것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생각과 서울에 남아 있는 우리 전통의 멋에 대해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다.
-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 신청할 당시만 해도 '인사동 학교'라는 말에서 풍기는 이미지 때문인지 내 또래의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주부, 교사, 학생,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수강을 하고 있었고, 그들

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인사동 학교를 통해서 인사동의 역사·문화 등을 배웠다면,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진지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수강생들을 통해서도 우리 것에 귀 기울이고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짐을 배웠다.

- 인사동 학교의 특징이라면. = 우선은 서양식 의자가 아닌 방석이 앉아서 우리의 자세로 수업을 받았다는 것이 인상에 많이 남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은 인사동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인사동 탐방수업이었다. 테마별로 나는 4개조 중, 나는 인사동 가게를 둘러보는 조였는데 평소 인사동을 찾기도 돌아다니며 구경하거나 찻집에 들어가 차를 마시던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인사동 탐방수업은 인사동의 또다른 모습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새로웠다.

-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 수업시간이 짧은 점이. 수업시간을 좀 더 늘리고 수강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과 인사동학교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들을 적절히 배분하면 강의의 질과 양적 아쉬움을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표은영 기자 pisk20@dongguk.edu



최세미나 (국문3)

고수 가 권한다

우성기 법정대 법학과 교수



길 없는 길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경허 스님의 삶을 통해 전해지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이 우리 모두를 '마음의 부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내가 곧 부처”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풀어내고 있다. 이 책에서 접하게 될 경허스님의 파격적인 삶과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들은 지친 사람들의 가슴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최인호 지음/ 샘터사, 정가 6천원.

벤치



“젊은이들의 끈기 없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할 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빛날 수 있는 인간, 그런 젊은이들이 되기 위해서 '인내'를 길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탄탄한 이야기 구성과 찰튼 헤스톤의 명연기가 어우러져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다시 일어나는 영웅의 모습을 보여준다. 숨막히는 정차경주 장면과 따뜻한 인간애가 드러나는 부분은 아직까지 현대인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 찰튼 헤스톤·잭 호킨스 주연/ 1959년작.

신라문화진흥원



“신라문화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는 종합사이트입니다. 신라문화를 중심으로 우리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신라문화진흥원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에서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 경주의 문화유적답사·소개, 경주 이해를 위한 현영한 사전을 비롯해 매달 유적답사 행사도 기획·안내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www.shilla.or.kr/ 문의(054)746-1950.

비발디의 사계



“우리나라는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고전음악을 통해 느끼는 자연의 깊이는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봄·여름·가을·겨울’을 나타내는 4곡의 작품이 자연의 섬세함을 그려낸다. 바이올린 선율에서 들어 나오는 비발디의 음악세계를 통해 자연의 소박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PHILIPS/1958년 1월/정가 1만4천원. 김미영 편집부장 candy@mail.dongguk.ac.kr

메아리

시대의 거울

▲19세기 후반 낭만주의에 대립하여 사실주의가 일어나던 시절엔 문화이 사회현실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했다. 문화 가운데에서도 소설은 대중의 삶을 현실성 있게 표현해 높은 교양이나 식견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라도 문자를 안다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이었다. 19세기 소설의 의미는 바로 감추어진 사회의 진실을 밝혀 정치적·경제적·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는 시대를 자유롭게 비판했다는 데 있다.

▲지난 13일 '인류 평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노벨 평화상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돌아갔다. 같은 날 고대 정문 앞에서는 특강을 거부하는 학생들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치가 14시간 동안 이어졌다. 사회 현실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국가. 김 전 대통령이 자유롭게 김대중 대통령을 깎아 내리는 발언을 하고 수상을 못마땅해하는 표정을 지어도 아무도 그를 욕살시키지 않았고 탄압하지 않았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김 전 대통령의 독설사건은 이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그가 자유롭게 남을 비판했지만 그 역시도 국민들의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국가가 한창이다. 이미 예상했던 하지만 역시나 금전과 관련된 많은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동방금고와 대신금고의 불법 대출

의혹사건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위간부들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추적중이다. 이번 사건이 국감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도피와 사건본인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것만은 명심하자. 아무리 우매한 사람이라도 부패한 사회를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귀가 열려있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이다. ▲19세기에 소설가 발자크가 봉건체제의 경

제적·도덕적·현실적 낙후함과 신용 브루주아 자들이 돈과 욕망의 노예로 타락하는 면모를 묘사해 타락한 시대의 타락해진 양심을 비판했다. 오늘날 우리는 소설처럼 꾸며진 부패한 도덕성과 사회의 부조리를 교양이나 식견이 없는 그 누구라도 고발 할 수 있어야한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국가에 살고 있다면.

김미영 편집부장 candy@mail.dongguk.ac.kr

취업길라잡이

기업과 인력을 한자리에 모는 취업박람회 한창이다. 보다 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취업박람회 KOJEX2000

온라인 상에서는 지난달 16일부터 각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인터넷 취업박람회 KOJEX2000본행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행사는 기존 인터넷 취업박람회의 제한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비공개 시간, 데이터 베이스의 향상을 비롯하고 있다. 인터넷 미디어 야후코리아와 공동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인터넷 취업박람회 KOJEX2000은 채용공고·계에서 합격자 발표에 이르는 채용 제반업무를 JobLink가 대행하여 디지털 경영 시대에 맞는 One-Stop 채용 솔루션을 제공한다. 취업 희망자들은 오는 30일까지 구직자 현황은 물론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으며 사이버 면접도 가능하다. 구직회원원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소=www.joblink.co.kr/ www.yahoo.co.kr 문의=KOJEX2000기획운영팀(080-784-6781-2,02-784-7840/Fax784-6789/E-mail kojex@joblink.co.kr)

미래의 동반자 취업 박람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설립한 비영리 자선 재단 '미래의 동반자'에서 주최하는 제1회 취업박람회가 오는 4일부터 양일간 코엑스 전시장(대서양홀)에서 개최된다. 유능한 인재들과 이들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을 서로 연결시켜줌으로써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주는 취지

로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서는 취업과 관련한 공개세미나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참가기업은 다임러크라이슬러 같은 재단 발족 후원사들을 비롯하여 국내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인 외국기업과 한국기업이다.

문의=미래의 동반자 취업 박람회(515-7149, 3453-8560)

책소개

의사들이 미쳤다!



몇 달 동안 몸살을 앓고 있는 의료대란의 배경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에 떠돌던 갑론을박들 중에서 상황을 비교적 중립적이고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는 글들만을 엮었다. 또한 인터넷상의 거침없고 다소 과격한 느낌의 문체들을 여과없이 실어 호응을 얻고 있다.

옹고 그들의 가치관만 보다는 '미친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의사들의 현실과 '의료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광수생각을 패러디한 만화와 다양한 삽화들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의학전문업의 문체들을 재치있게 표현한다. 지식공작소/신재은, 김기범, 김일수 엮음/정가 6천원

제의성

여성의 특수한 뇌구조가 선천적 재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것인지를 제시한다. 위계와 서열, 전문성이 강조되던 산업형태에서 분권화, 수평



적인 경영조직 네트워크, 유연성이 요구되는 정보사회에 여성의 생물학적 구조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와 구조의 불합리 때문에 여전히 여성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여성의 뇌에 대한 실증적 자료와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행동 생물학 등에서 발표된 증거들을 토대로 미래는 여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시몬 드 보바르가 1949년에 발표한 '제2의 성'을 반박하며 여성은 만들어진다기보다 태어나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책. 생각의 나무/헬렌 피셔 지음/정명진 옮김/정가 1만 5천원

짧은 소식

학교 안에서

백상 콘서트

서울캠 '백상음원단'이 제15회 정기 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는 음원단 내 심어 파트의 락 공연이 주를 이루며, 본조비의 'It's my life' 등 7곡이 액션축하무대로 꾸며진다. 타대학 음원단과 초대 가수 조장혁의 축하무대로 이어져 풍성한 볼거리의 장이 될 것이다.

무료. 다음달 2일, 6시. 만해광장. 문의 2260-3683

미술학부 졸업작품전

서울캠 미술학부가 졸업작품전을 갖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늘(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갤러리 동국에서. 문의 011-9066-8571(안경진:미술학부)

근대 한국학 자료전



서울캠 박물관에서 '근대 한국학 자료전'이 열린다. 경주캠 한문학과를 장년퇴직한 황순구 교수의 소장품을 위주로 전시하며, 중주법을 개발한 지식영 선생의 의서 '언문'과 같이 교과서에서나 보던 근대 학자들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문의 2260-3462

강철사랑 정기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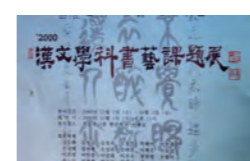
경주캠 노래패 강철사랑이 열 번째 정기공연을 가진다. 이번 공연은 'IMF체제 이후 사회의 흐름'을 주제로 진행되며,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노래로 풀어내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중가요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사노

리엔', '희망' 등의 민중가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오는 3일 6시. 소강당 1에서. 문의 016-404-5936

서예 과제전



이번 과제전은 가을 학술제 기간을 맞아 한문학과 최경훈 교사의 도움으로 재학생 29명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며, 평소 소외되어 왔던 한자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는 1일부터 3일까지. 원효관 3층 서예실에서. 문의 017-505-2025

가야금 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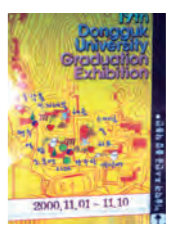


경주캠 국악과가 가야금 연주회를 연다. 불교문화대학원 신설 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영산회상 중 군악'을 비롯해 총 6곡을 선보이며, 가야금과 장구·대금이 어우러져 멋스러운 전통음악을 표현한다.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오는 1일 오후 6시 30분. 소강당 II에서. 문의 (054)770-2202

조소전공 작품전

경주캠 미술학과 조소전공 졸업작품전



이 19번째를 맞이한다. 이번 작품전은 12명의 졸업생들이 공동작업한 '자소상'이라는 작품을 포함해 총 36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 작품들은 온방골의 가을풍경을 배경으로 전시되며, 학교 안 어느 곳에서나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오는 1일부터 10일까지. 교내에서. 문의 016-536-5171

월드뉴스 공개발표회



영어들이 실력 향상과 살아있는 영어를 접할 수 있게 되는 자리이다. 오는 1일 오후 5시. 도서관 시청각실. 문의 (054)770-2770

백상배 볼링대회

경주캠 동아리 동국볼링에서 13번째 '백상배 전국 대학생 볼링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경주시 볼링협회 주관으로 영남지역 대학 볼링클럽 학생 2백여 명이 참여하며, 차승규·단체전·신임부 경기로 진행된다.

이번 자리를 통해 볼링의 활성화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4일 오전 9시. 경주 황성 볼링장에서. 문의 (054)770-2763, 771-0808

동아리 탐방

수화, 손과 눈빛으로 마음 전하는 '마법'

손짓사랑회...세미나·봉사활동 통해서 장애인 이해

손짓사랑회 동아리방은 매일 오후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그들의 손놀림은 바쁘기만 하다. 매일 30분씩 손짓과 마음으로 대화하는 '수화의 시간' 때문이다.



서울선교회에서 봉사중인 손짓사랑회.

회원들간의 대화에도 수화를 사용할 정도로 수화가 생활화되어 있는 손짓사랑회는 지난 90년 일반 학생들에게 수화를 알리고 싶어했던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화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연구, 봉사활동에 힘쓰면서 본교 유일의 장애인 관련 동아리로 입지를 굳혀오고 있다.

그러나 아무나 손짓사랑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손짓사랑회 자체적으로 매년 2번 개설하는 기초반을 수료하거나 한국청각장애인지원회의 기초과정을 거친 학생에게만 입회 자격이 주어진다. 벌써 4백명이 넘는 손짓사랑회 기초반 수료생들은 회원 대부분을 차지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손짓사랑회는 매주 세미나를 통해 끊임 없이 연구하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수화의 홍보를 취지로 창설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들은 타대학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수화가 본교 교양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중이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문화원에서 청각장애인들을 돕고 있는 연화아나나. 한 달전부터는 서울선교회에서 농아학생들의 학업을 돌보며

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요즘 손짓사랑회는 다음달 11일에 있을 수화제 준비로 한창이다. 이번 수화제는 4년만에 열리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손짓사랑회 전진아(가교2)회장은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에게 알찬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이나 수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화는 외국어와 같다. 수화를 배우는 것은 영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장애인에게도 특별한 관심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 다가가야 한다.

말없이 손으로 사랑을 전하는 손짓사랑회의 모습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벽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도 그 사람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VIEW FINDER

"가을 향기" ...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오후. 새로 단장한 정보문화관 옥상 쉼터에 마주 앉은 학생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촬영=송광수 동문

독자광고

독자광고는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하숙집 구함, 야학교사 모집, 각 동아리·학생회 소모임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분야에 제한없이 순수한 독자들의 광고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Meal type and Price. Rows include 김치찌개, 치킨가스, 양지탕, 고구마별미밥, 어묵국, 탕수육백반, 연두부찌개, 불고기비빔밥, 떡만두국, 개살간풍기.

(단위: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Meal type and Price. Rows include 사골우거지국, 새우가스, 쇠고기야채밥, 두부김치, 닭가슴살, 갈비찜, 곰탕, 김치볶음밥, 닭고치구이, 불고기백반.

(단위:원)

Workshop advertisement for '내 몸을, 내 영혼을 자유롭게' with a woman in a swimsuit.

Concert advertisement for '제15회 백상Concert' featuring a guitar.

Advertisement for '6·15 남북 공동선언 지지 관철과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반미 문화제' with a map of Korea.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Meal type and Price. Rows include 호박감자된장국, 카레라이스, 시금치국, 돈까스, 감자다시마국, 쇠고기볶음밥, 팽이버섯계란국, 오징어덮밥, 복어채국, 햄이채볶음밥.

(단위:원)

물리학과 학술제

서울캠 물리학과는 자연인류를 꿈꾸며 따진 뉴턴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 4회 학술제를 개최합니다. 학술제는 세미나 이외에도 과학상식을 묻는 OX퀴즈와 골든벨 프로그램, 자기부상열차 모형전시회 등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행사 마지막 날에는 대운동장에서 '물리인의 밤'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 1일(수) 5시 30분 / 팔도주 주변 문의 / 김흥진 (011-9065-0711)